

선생님,
님 오심,
짜깁 좀
가공 좀
바꿔주세요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통계 동화

선생님,
님도
짜깁 좀
바꿔주세요

이규희 글 안영선 그림



통계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통계가 무엇인지 아세요? 수학시간이나 신문 방송을 통해 들어보기는 했다고요. 그럼, 통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너무 어려워 잘 모른다고요. 나와 관계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곳곳에서 실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이야기할 때나 생각할 때 자주 통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실 뒤편에는 누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는지, 누가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는지를 막대그래프로 그려놓은 칭찬 게시판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누가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는지, 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어떤지, 앞으로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눈에 알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통계랍니다.

이 책의 주인공 민호는 자기가 생활하는 학교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풀어 나가기도 하



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도 합니다. 민호의 행동과 생각을 따라가보면 통계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 원인도 알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그 일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고, 또한 똑똑하고 마음이 따뜻한 어린이로 자랄 것입니다.

꿈을 먹고 사는 여러분들은 우리 어른들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그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세요. 통계를 알면 타임머신처럼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여러분이 가진 꿈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통계는 내 친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면 합니다. 통계는 여러분들과 항상 친한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2월 통계청장 오갑원

작가의 말



재미있는 통계 나라로 구경 오세요!

요즈음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책이며 잡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자료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찾거나 읽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그럴 때 누군가가 아주 중요하고 뼈대가 되는 자료들을 찾아서, 누구나 알기 쉽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심 봉사(心奉事)가 눈을 뜬 것처럼 눈이 반짝 빛나고, 전깃불을 켜듯 머릿속이 환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마술 같은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긴, 저도 ‘선생님, 짝꿍 좀 바꿔주세요’라는 글을 쓰기 전까진 그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몰랐답니다.

지난 여름, 통계청과 손을 잡고 ‘통계 동화’를 쓰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세상에는 이처럼 재미있고, 편리하고, 유익한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바로, 아무리 많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딱딱하고, 아무리 재미없는 주제라도 한눈에 속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마술 같은 통계의 나라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 후, 저는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잡지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도 표들을 보는 즐거움에 푹 빠졌답니다. 특히 이 글을 쓰면서 주인공 민호와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통계의 나라를 구경하게 되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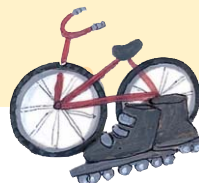
이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손잡고 그런 통계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을래요?

그 속에 들어가면, 재미있는 이야기와 그림과 함께 지금까지 본격이 없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 곳을 다녀오면 누구나 지금보다 더 넓고,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테니까요.






차례





-  짝꿍 좀 바꿔주세요 • 11
-  똥똥한 아이는 싫어요 • 21
-  강아지 좀 사주세요! • 36
-  은영이가 소녀 가장이래요 • 48
-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 63
-  나는 왜 키가 작을까? • 71
-  내 용돈은 내가 관리해요 • 89








 뭐, 한자 신동은 아무나 되나요? • 103

 엄마, 아빠 100살까지 사세요 • 115

 학교 가기 싫어요 • 129

 엄마, 동생 하나만 낳아주세요 • 143

 햇빛 마을 아이들이 서울에 왔어요 • 157

 통계왕과 통계짱이 만나다 • 170





짜꿍 좀 바꿔주세요

새 학년이 된 민호는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제발 예쁜 여자 아이랑 짜꿍을 했으면…….’

민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그건 작년 내내 남자 아이랑 짜꿍을 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같이 생활하게 되어 반가워요. 선생님의 이름은 김영인이에요. 우리 이제 일 년 동안 같은 배를 탔으니 서로 노력해서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자리 배정을 하기로 하죠. 이 쪽으로 남자, 여자 따로따로 줄을 서도록 해요.”

새 담임선생님께서 맑은 소프라노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민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복도에 나가



서 남자 아이들이 서 있는 줄의 뒷자리 쪽으로 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보아도 남자보다 여자 아이들의 줄이 짧았다. 그건 올해도 또 민호의 짝이 남자가 될 확률이 100퍼센트라는 불길한 징조였다.

‘으음,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아니나 다를까 민호의 예감은 딱 들어맞았다. 남자 아이들만 6명이 남은 것이다.

“할 수 없구나. 너희들은 남자들끼리 앉아야겠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키를 맞춰서는 둘씩 짝을 지워주셨다.

민호는 어딘가 좀 지저분하게 생긴 강승규라는 아이와 짝이 되었다.

“헤헤, 김민호, 너 또 홀아비끼리 앉는구나!”

저 쪽에서 민호랑 제일 친한 재욱이가 5학년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예나 옆에 앉아서는 승리의 브이(V)자를 그리며 약올렸다.

민호는 기분이 떨떠름하기만 했다. 어쩐지 5학년 첫날부터 마음 속에 먹구름이 잔뜩 낀 기분이었다.

“치, 선생님, 제발 짝꿍 좀 바꿔주세요! 저도 여자 친구랑 앉고 싶어요!”



민호는 잔뜩 불멘소리로 말했다.

“호호, 여자 짝꿍이 아니라고 잔뜩 심통이 났구나. 나중에 바꿔줄 테니 이번에는 그냥 앉도록 하렴.”

선생님께서 민호의 마음을 달래주시려는 듯 활짝 웃으셨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보나마나 다음번에도 남자아이랑 앉을게 뻔했으니까.

민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심술이 났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의문점이 생겼다.

‘참 이상하다. 왜 늘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더 많은 거지?’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일부러 남자 아이만 골라서 낳는 걸까?
아니면 우리 학교만 유난히 남자 아이가 많은 걸까?’

평소에 무슨 일이든지 꼼꼼하게 따지길 좋아하는 민호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 내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남자 짝꿍이랑 앓은 데는 반드시 숨겨진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내야 해.’

민호는 곰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지다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여자 아이 100명당 남자 아이 출생자수를 나타내는 출생 성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통계수치를 찾아낸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지?’

도표를 들여다보던 민호의 머릿속은 점점 더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졌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민호가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다.

민호는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손을 번쩍 들고는 선생님께 질문을 하였다.

여자 아이 100명당 남자 아이 출생자 수



자료 : 통계청, 「장타인구추계」

“선생님,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찾아본 통계에 의하면 예전보다 남자 아이의 출생 비율이 여자 아이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민호의 엉뚱한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잠시 생각을 하시다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셨다.

“음, 참 좋은 질문이로구나. 그건,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란단다. 이 마음 때문에 엄마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으면 아들을 낳으려 하는 거란다.”



그러자 수지가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저희 이모도 시집가자마자 한의원에 가서 아들 낳는 약을 지어 먹었대요. 이모부가 3대독자라 아들을 낳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래도 요즈음은 나은 편이란다. 옛날에는 딸을 연달아 낳으면 식구들이 어찌나 섭섭했는지 아기에게 ‘섭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기도 하고, 딸은 이제 그만 낳게 해달라는 뜻의 ‘그만이’라고 짓기도 했지.”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은 그만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자 뒷자리에 앉아 있던 은영이가 말했다.

“그래요, 저희 사촌언니도 병원에서 식이요법을 했대요. 아들 낳게 해주는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요.”

“칭, 너무해!”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하였다.

입을 삐죽거리는 여자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또 다시 설명을 하셨다.

“그래, 너희들 말이 다 옳단다. 그렇게 온갖 민간요법이나 과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들을 낳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점

집 남자 아이의 출생 성비가 높아지는 거란다.”

“그래서 저처럼 남자끼리 앓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군요.”

민호는 그제야 자기가 왜 남자끼리만 앓게 되었는지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다.

‘혹시 우리 엄마도 그렇게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나를 낳은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엄마도 아들선호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임이 분명해. 막내 이모가 딸을 낳았다고 하자 섭섭해 하셨던 걸 보면 틀림없어.’

민호는 갑자기 모든 엄마들이 자꾸자꾸 아들만 낳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

그건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일이었다. 남자들끼리만 살고, 남자들끼리만 공부하고, 버스나 지하철 속에도 남자들만 있다면!

그러다가 민호는 울상을 지으며 물었다.

“그럼, 선생님, 이다음에 여자가 부족해서 장가도 못 가면 어찌지요?”

“하하하!”

‘장가’라는 말에 반 아이들 모두 책상을 치며 깔깔 웃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심각한 얼굴로 대답하셨다.





“그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구나. 그러잖아도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를 예측해 놓은 자료에 따르면, 결혼할 나이의 남자, 여자의 비율이 더욱 벌어져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여자 100명당 남자가 118.9명이 될 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신붓감을 구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멀리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서 신부를 구해 오는 일이 많아졌단다.”

“맞아요, 선생님. 요즘에도 전봇대나 벽에 ‘중국·베트남 처녀

결혼’이라는 포스터를 붙여놓은 걸 보았어요. 텔레비전에서 한국 아저씨들이 베트남이나 연변에 가서 선을 보고 색شط감을 데려오는 것도 보고요.”

은하가 선생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단다. 요즈음 시골에 가보면 베트남, 필리핀, 연변 아가씨들을 며느리로 얻은 집이 많이 있단다. 풍습과 습관, 음식문화가 다른 낯선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대부분 잘 살고 있지만 그 중에는 적응을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런 외국인 신부를 데려오는 일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남자, 여자의 성비가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요즈음 뜻있는 사람들은 호주제를 없애자는 의견을 제시한 단다.”

“선생님, 호주제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호주제가 없으면 남녀 성비가 비슷해지나요?”

민호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음, ‘호주제’라는 것은 한 집안의 대가 남자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런 호주제를 없애야만 남녀평등이 이뤄지고, 남녀평등이 이뤄져야만 꼭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고집도 사라



진다는 거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학자들이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서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민호는 그 때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눈이 말뚱말뚱해질 뿐이었다.

‘이다음에 내가 커서 장가갈 때 섹시를 구하지 못하면 어쩌지? 그래서 혹시 말도 안 통하는 중국 여자나 베트남 여자를 섹시로 맞이하게 된다면? 으악, 안 돼!’

민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내 섹시감은 내가 구해야 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맞아, 맞아! 무조건 여자 아이들의 인기를 얻어야 해. 괜히 지금처럼 짓궂게 장난을 치면 안 돼!’

민호는 날마다 여자 아이들을 골려주는 재미로 학교엘 갔는데 이젠 작전을 바꾸기로 했다. 무조건 여자 아이들의 비위를 살살 맞춰주기로 말이다.

‘아휴, 장가가기 정말 힘들구네!’



뚱뚱한 아이는 싫어요



며칠 전 점심시간의 일이었다.

아이들은 급식 당번이 담아준 점심을 식판에 받아 들고 자리에 앉자마자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때 갑자기 최우열이 김영미를 보며 외쳤다.

“우와, 꽃돼지, 정말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자꾸 뚱뚱해지지, 안 그러냐?”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와아’ 큰 소리로 웃어댔다.

영미의 얼굴은 금세 잘 익은 토마토처럼 빨개졌다. 그러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로 입술을 삐죽거리다간 식판을 던지듯 자리에 내려놓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뚱뒤뚱 뛰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기 돼지처럼 보였다.

“최우열, 친구를 그렇게 놀리면 되겠니? 어서 나가서 사과하고 데리고 오렴.”

선생님께서 큰 소리로 꾸중을 하셨다.

“선생님,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꽃돼지라고 놀리는걸요.”

우열이는 못마땅한 얼굴로 투덜거렸다. 하긴 우열이 말이 맞았다. 아이들은 특하면 영미를 ‘꽃돼지’ ‘아기 코끼리’라고 놀려댔으니까.

하지만 우열이는 선생님이 큰 소리로 꾸짖자 못 이기는 척 밖으로 나갔다.

민호는 유리창을 통해 우열이가 영미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걸 보았다.

하지만 영미는 고집쟁이처럼 자꾸만 고개를 옆으로 저을 뿐이었다.

그날, 결국 영미는 점심을 먹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영미는 점심시간만 되면 슬그머니 교실을 빠져나가 혼자 어디론가 가버렸다. 나중에 그걸 알게 된 선생님과 아이들이 아무리 달래도 막무가내였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

민호는 한 끼만 굶어도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근히 영미가 걱정이 되었다.

다행히 영미는 선생님께서 타이르시자 3일째 되는 날부터 다시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미는 다른 아이들을 의식해서인지 이제 급식판에다 밥이랑 반찬을 조금씩밖에 담지 않았다. 급식 당번이 수북하게 담아주려 하면 얼른 떨어놓곤 하였다.

그러자 아이들은 또 영미의 급식판을 들여다보며 놀려댔다.

“야, 김영미, 그렇게 새 모이만큼 먹으면 어떡하니?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정말이지 영미는 뚱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고 있었다. 그러자 영미는 점점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하지 않았고, 공부시간에 뭘 물어도 그저 모기소리만하게 대답을 해서 선생님을 안타깝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청소 당번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민호는 어디선가 솔솔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에 코를 킁킁거렸다. 바로 ‘행복한 햄버거’ 가게에서 나는 냄새였다.

‘우와, 맛있겠다!’



민호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침을 꼴깍 삼켰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다.

‘아니, 채는?’

두툼한 햄버거를 우적우적 먹고 있는 아이, 그 아이는 바로 영미였다.

민호는 아는 체를 할까말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플라타너스 나무 뒤에 숨어서 영미를 지켜보았다.

영미는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햄버거며 감자튀김을 먹고 있었다. 옆에는 제일 큰 컵의 콜라 잔도 보였다.

민호는 영미에게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학교에서는 새 모이만큼 급식을 먹더니, 학교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에 와서 실컷 배불리 먹다니.

‘흥, 저렇게 돼지처럼 먹으니까 살이 찐지!’

민호는 영미를 걱정했던 것이 후회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영미가 혼자 저렇게 몰래 숨어서 먹는 심정을 헤아리자 영미가 가엾어졌다.

그날 이후였다. 민호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영미를 몰래몰래 훑쳐보는 버릇이 생겼다. 가만히 보니 영미는 몸이 뚱뚱하긴 했지만 얼



굴이 여간 귀여운 게 아니었다. 눈도 크고 막았고, 뺨도 언제나 복숭아처럼 발그레했다.

‘살만 빼면 참 예뵈 텐데.....’

민호는 영미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깜짝 놀랐다.

‘아니!’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영미가 혼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영미의 손에는 감자 스낵이 들려 있었다. 혼자 과자를 먹던 영미는 인기척에 흠칫 놀라 얼른 과자를 등 뒤로 감췄다.



민호는 주춤주춤 영미 옆으로 다가갔다.

“너, 이 아파트에 사니?”

“응!”

“그래? 우리 집도 여긴데. 저기 109동 807호. 넌?”

“난 107동 1009호.”

“그럼 바로 우리 집 앞 동이잖아. 그런데 왜 혼자 여기 있니?”

“집에 아무도 없어. 엄마 아빠는 일하러 나가셨다가 밤늦게 돌아 오시거든. 시내에서 신발 가게를 하셔.”

“그럼, 너 혼자 있는 거야? 저녁밥도 혼자 먹고?”

“응,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과자랑 콜라를 사 먹기도 해. 어느 때는 순대랑 햄버거, 떡볶이도 사 먹고.”

그 말을 듣자 민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래서 자꾸자꾸 똥똥해지는 거야.’

영미는 시내에서 신발 가게를 하느라 밤늦게 들어오시는 엄마 아빠 때문에 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있을 때가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 밥을 먹는 시간도 일정하지가 않았고, 혼자 먹기가 귀찮으니까 자꾸만 밥 대신 간편한 인스턴트 음식만 먹었던 것이다.

민호는 문득 얼마 전 신문에서 읽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클린턴이 갑작스런 심장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의 막혀 있는 혈관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놀라운 건 클린턴이 패스트푸드를 유난히 좋아했다는 것이다. 백악관 시절에도 밖에서 햄버거를 사다가 먹을 정도로 말이다. 그런 그의 음식 습관이 심장병의 원인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영미도 그렇게 될지 몰라.’

민호는 엄마가 정성껏 차려주시는 식탁을 떠올렸다. 엄마는 언제나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생선을 굽고, 나물을 조물조물 무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 그러면 할머니랑 아빠, 민호는 언제나 밥 한 그릇을 똑딱 비웠다.

민호는 날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영미가 마냥 가엾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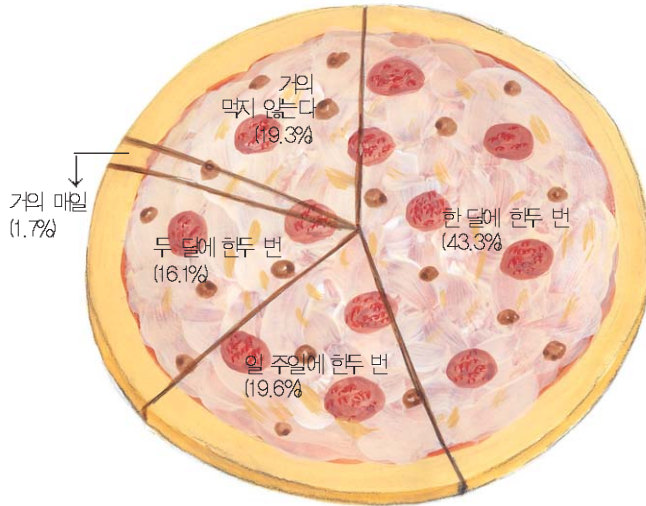
‘어떻게 해야 영미를 도와줄 수 있을까?’

민호는 곰곰 궁리를 하였다.

며칠 후, 마치 민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신 듯, 선생님께서 어린이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말씀해주셨다.

“이 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 대부분이 패스트푸드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즐겨 먹는 것으로 나타났구나. 환경 단체와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에서 서울·경기 지역 초, 중등

패스트푸드 이용 횟수



특별한 날(생일, 졸업식 등) 가족과 함께 패스트푸드를 먹는 비율



패스트푸드 이용 횟수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두 번’(43.3%)이 가장 많았고, ‘일 주일에 한두 번’(19.6%), ‘두 달에 한두 번’(16.1%), ‘거의 매일’(1.7%) 등이 뒤를 이었다. ‘거의 먹지 않는다.’는 대답은 19.3%에 불과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72.4%, 중학생의 47.2%가 생일, 졸업식 등 특별한 날 가족과 함께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고 대답했다.

학생 2,020명을 대상으로 ‘패스트푸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75.0퍼센트의 학생들이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똥똥해진다’라고 답했다는구나. 또 ‘성인병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답한 학생이 58.8퍼센트였고, ‘집중력이 떨어져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답한 학생도 34.4퍼센트였고 말이다.”

선생님의 말씀에 특하면 패스트푸드점을 찾는 아이들은 걱정스런 얼굴로 귀를 기울였다.

“어떠니, 이런 통계 자료를 보니까 너희들이 무심코 먹는 패스트 푸드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 알겠지? 그래서 제주도의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한 반을 비만아들로 편성해서 ‘비만치료학 급’으로 정했다는구나. 교실 뒤편에 학생 27명의 이름과 키, 몸무게, 비만도, 체중 변화 등을 적은 표를 붙여놓고 날마다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그 반의 아이들은 이른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줄넘기 1,000번 혹은 1,000미터 달리기를 하고, 점심시간 전에는 윗몸 일으키기 40회, 수업이 끝나면 2시간 동안 수영과 걷기를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그렇게 했더니 27명의 아이들이 모두 한 학기 동안 평균 5.1킬로그램의 몸무게를 뺐다고 한단다.”

“우와, 정말 놀라워요!”

아이들은 그런 특별하고 재미있는 학급이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운 모양이었다.

“그만큼 요즘 어린이 비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지. 그럼, 이제부터 비만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해보기로 할까?”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보며 넋지시 물으셨다.

“우선 햄버거나 피자, 치킨 등 어린이들에게 비만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아야 해요.”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어야 해요.”

“음,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해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녀야 해요.”

“간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 너도나도 한마디씩 말했다.

“그래, 참 좋은 의견들이구나. 어릴 때부터의 나쁜 식습관은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성인병에 걸리는 원인이 된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을 멀리하고 엄마가 해주는 밥이랑 반찬을 먹어야 하겠지? 옛날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김치나 된장만큼 좋은 식품이 없단다. 그런 음식들은 모두 패스트푸드의 반대인 슬로푸드라고 하는 거란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미는 ‘비만’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괜히 죄지은 아이처럼 고개를 떨어뜨린 채 듣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민호는 영미가 더욱 가엾게 느껴졌다.

그날 밤 민호는 인터넷에서 ‘어린이 비만’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았다. 그 기사들을 읽는 동안 민호는 깜짝 놀랐다. 많은 어린이들이 비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똥똥해도 엄마는 날 사랑해?” 하고 묻는다는 것이다. 키 130센티미터에 체중이 43킬로그램 나가는 그 아이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도 똥똥하다고 놀리고 같이 놀아주지 않아 힘들어한다고 했다.

또 경기도 안양에 사는 6학년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컴퓨터 게임, 만화책 보기, 텔레비전 보기로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다른 아이들이 다 가는 학원에도 안 가고 말이다.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똥보라고 놀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똥똥한 아이들은 늘 ‘똥똥해서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똥똥한 사람은 게으른가?’하고 주눅들고, 늘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고 했다.

민호는 무심코 ‘똥보’ ‘돼지’라고 놀리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그





아이들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상처를 준다는 걸 깨닫자 가슴이 아팠다.

‘아마 영미도 똑같은 마음일 거야.’

민호는 어떻게든 영미를 도와 주고 싶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이었다. 무심코 교실 뒤쪽에 있는 게시판을 바라보던 민호는 퍼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 그래, 좋은 수가 있어!’

민호는 혼자 빙그레 웃으며 게시판에 붙어 있는 반 아이들의 이메일 주소 중에서 영미의 주소를 외웠다.

그날 밤부터 민호의 이메일 작전이 시작되었다. 민호는 영미에게 자기의 원래 이름 대신 애니메이션 영화 ‘슈렉’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영미야, 나는 너의 착하고 예쁜 마음을 참 좋아한다.

그런데 네가 조금만 날씬해지면 마치 피오나 공주처럼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해. 내가 도와줄게. 힘들겠지만 한번 노력해보지 않겠니?

여기, 내가 자료를 보내줄 테니 읽어보려무나.

미래의 너의 날씬한 모습을 떠올리며

너를 좋아하는 슈렉으로부터

민호는 그 날부터 과학 잡지나 엄마가 보는 여성지, 신문에서 본 비만에 관한 기사나 통계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이메일로 영미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10개의 규칙도 있었다.

1. 하루 세 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2. 식사는 되도록 천천히 20~30분 동안 하고, 음식은 15번 이상 씹는다.
3. 식사는 정해진 곳에서 하며 텔레비전, 책 등을 보면서 먹지 않는다.
4. 간식으로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사탕, 초콜릿은 좋지 않다.
5. 햄버거, 피자,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과 치킨 등의 튀긴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다.
6. 짜거나 매운 음식은 식욕을 자극하므로 음식은 싱겁게 먹는다.
7.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한다. 그래야 간식과 과식을 피하게 된다.



8.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9.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닌다.

10.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운동한다.

그뿐이 아니었다. 어느 날은 날씬하고 예쁜 벨런트나 가수 사진을 동영상으로 올려주기도 했다. 그런 예쁘고 날씬한 여자들을 보면서 영미가 자극을 받아뉘려고 노력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앗!’

민호는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째는 급식 시간에 영미의 식판 위에 놓인 반찬이 달라진 것이었다. 다른 때는 늘 소시지나 돈가스, 햄버거 같은 고기 종류만 먹던 영미의 식판에 콩나물이나 두부 반찬, 도라지 무침 같은 게 올려져 있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영미의 얼굴 표정이 점점 환해진다는 점이였다.

영미는 누군가가 몰래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시무룩하던 얼굴에 웃음이 감돌고, 선생님께서 뵈

물어도 모기소리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이젠 제법 또랑또랑하게 바뀌었다.

“어머나, 요즈음 영미한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니? 얼굴이 몰라보게 예뻐졌구나. 이런, 그리고 보니 몸도 날씬해진 거 같은데?”

선생님의 칭찬을 받은 영미의 얼굴이 복숭아처럼 발갛게 물들었다.

민호는 그런 영미가 정말 피오나 공주처럼 예쁘게만 보였다.

‘내가 너무 심했나?’

민호는 혼자 싱글벙글 또 웃었다.
짜꿍 강승규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는 줄도 모르면서.





강아지 좀 사주세요!

어느 틈에 달콤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월이 되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벌써부터 술렁술렁거렸다.

“아, 이번 어린이날에는 뭘 사달라고 하지?”

아이들은 즐거운 고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건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어린이날에는 강아지 선물을 받아야 할 텐데…….’민호의 소원은 자나깨나 ‘강아지’뿐이었다. 장난감 강아지가 아니라 망망 짙고 돌아다니는 진짜 살아있는 애완견 말이다.

하지만 그걸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특히 엄마가 문제였다. 엄마는 강아지라면 무조건 질책을 하셨으니까. 엄마께서는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안고 가는 형이나 누나가 강

아지랑 뽀뽀를 하는 걸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셨다.

“아니, 더럽지도 않나? 사람이 어떻게 개하고 입을 맞추고 그럴까?”

엄마께서는 마치 외계인을 보듯 신기한 눈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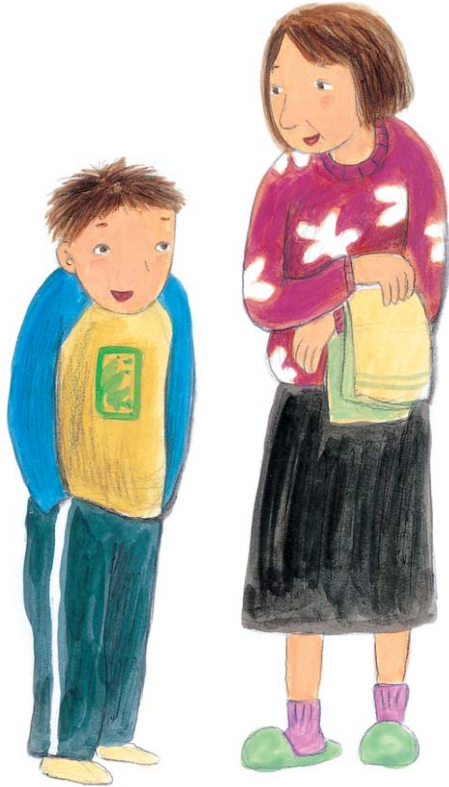
하긴 할머니께서도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걸 탐탁찮게 여기시긴 마찬가지였다.

“그저 동물들은 마당에서 흙을 밟으며 이리저리 뛰어놀게 해야지. 집안에 가둬두면 얼마나 답답할꼬!”

할머니께서는 시골에서 키우던 개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할머니는 엄마만큼 심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으셨다. 그렇다면 엄마만 빼놓고는 모두 민호 편이었다. 우선 아빠는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어, 고 녀석 참 귀엽다!’하며 어루만지고, 가끔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면 강아지 한 마리 사다가 키우면 좋을 텐데.’하는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가.

‘그래, 네 식구 중에서 3명이 찬성이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과반수가 넘었는걸 뭐. 무조건 밀어붙여야 해.’



민호는 우선 제일 먼저 엄마를 공략하기로 했다.

“엄마, 이번 어린이날 선물 사주실 거예요?”

“그럼 사줘야지. 너무 비싼 거 말고!”

잔순이 엄마께서는 미리 선물의 가격부터 못을 박았다.

“어쨌든 이번 어린이날 선물은 꼭 저와 같이 사러 가야 해요. 괜히 엄마 맘대로 아무거나 사오지 마시고요.”

“도대체 뭘 갖고 싶은데 그래?”

“아직은 비밀이에요. 나중에 다 말할게요.”

“아휴, 요 녀석이 또 무슨 꿍꿍이짓을 하려고! 너, 비싼 게임기 같은 건 절대 안되는 줄 알지?”

엄마께서는 다시 한번 단단히 못을 박으려는 눈치였다.

하지만, 이쯤이면 민호의 일단계 작전은 성공이었다. 엄마 혼자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서 덜컥 선물을 사오시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작전은 뜻을 같이 할 동지를 만드는 일이었다.

민호는 학교에 갔다 와서 느물느물 웃으며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어깨 주물러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손자 다 컸네, 다 컸어! 그러잖아도 비가 오려는지 팔다리가 콧콧 쑤셨는데…….”

할머니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 민호 앞에 등을 내미셨다.

민호는 할머니의 어깨를 시원하게 주물러 드렸다.

그다음에는 엄마의 비위를 살살 맞추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작전 중의 하나였다.

“엄마, 제가 쓰레기봉투 버리고 올게요.”

다른 때 같으면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테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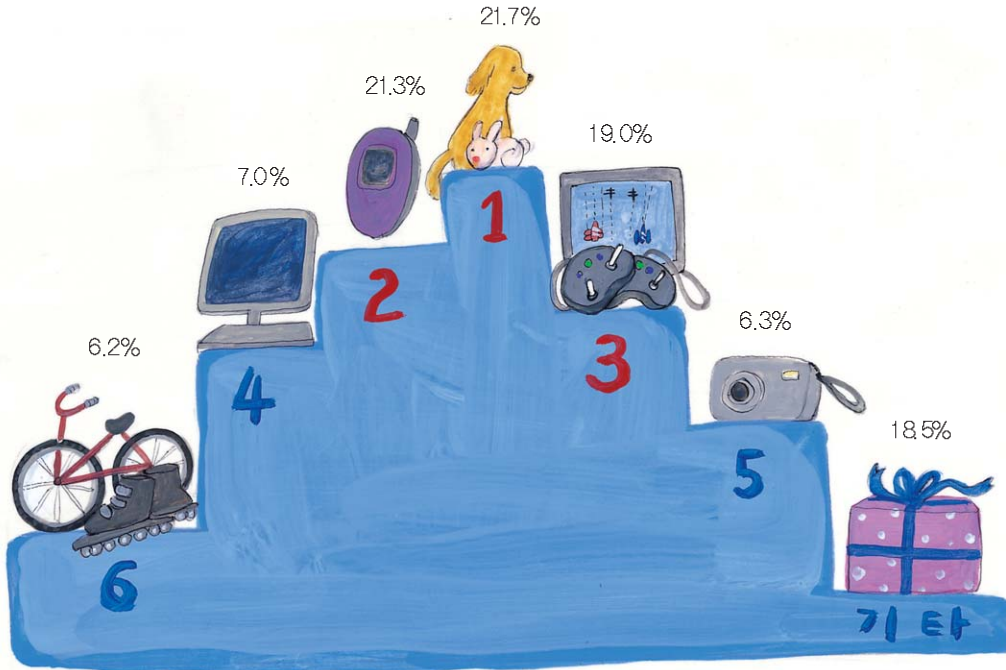
“어머, 애가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러지? 너 용돈 떨어졌니?”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힘드실까봐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민호는 쓰레기 버리는 일부터 심부름, 안마, 청소, 구두 닦기, 무엇이든 안 가리고 다 했다. 그러면서 호시탐탐 자신의 속셈을 은근히 내보일 기회만 엿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온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였다.

어린이 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애완동물(21.7%)이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21.3%), 게임기(19.0%), 컴퓨터(7.0%), 디지털 카메라(6.3%), 인라인 스케이트나 자전거(6.2%) 순으로 나타났다.

“엄마, 애니메이션 채널 투니버스에서 작년에 어린이 6,0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꼭 갖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인터넷 설문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떨지 아세요? 자, 여기 통계 자료가 있어요!”

민호는 잡지에 난 통계 자료를 엄마의 코앞에다 내밀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애완동물이 21.7퍼센트로 제일 많았대요. 2위는 21.3퍼센트로 휴대전화고요. 엄마, 이런 통계만 봐도 아시겠지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어하는지 말이에요.”

“허허, 그거 참 흥미로운 조사로구나. 그래, 넌 뭘 받고 싶으냐?”

아빠께서 젓가락으로 시금치 나물을 집으시며 무심코 물으셨다.

“저는 당연히 애완동물이지요! 강아지 말이에요!”

“뭘야? 가, 강아지를 받고 싶다고?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아파트에서 키운다고 그래!”

엄마께서는 민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리를 지르셨다.

“그래, 어멈 말이 맞다. 나도 싫다.”

그동안 몇 번이나 안마를 시원하게 해드렸건만 할머니마저 고개를 옆으로 내저으셨다.

잔뜩 실망을 한 민호가 아빠를 바라보며 말없이 구원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유일하게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아빠는 아무 편도 아니라는 듯 밥만 드시고 계신 게 아닌가?

“치, 우리 반 아이들 중에는 고슴도치나 햄스터, 심지어는 도마뱀



을 키우는 아이도 있는데 강아지가 뭐 어때서..... 어떤 아이는 집에서 돼지도 키운대요.”

민호는 절대로 물려서지 않겠다는 듯이 덧붙였다. 싸움터에서 적을 이기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기 싸움이라는 말을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그 때였다. 생각지도 않게 아빠께서 한마디 거들어 주셨다.

“허, 그러고 보니 얼마 전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보니 집안에서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던데, 강아지는 아무 것도 아니지 뭐.”

민호는 마치 백만 군사를 얻은 장군처럼 힘이 솟았다.

하지만 엄마와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고개를 세차게 내저으실 뿐이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민호가 아니었다. 민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아지’ 타령을 하였다.

“엄마, 요크셔테리어, 말티즈, 치와와, 푸들, 그 중에서 어떤 강아지가 제일 예뻐요? 저는 말티즈가 좋거든요. 하얀 털이 눈을 가릴 듯 흘러내린 게 너무 귀여워요. 엄마, 말티즈로 사주세요, 네? 강아지 목욕도 제가 시키고요, 똥도 제가 다 치울게요.”

민호는 자나깨나 강아지 타령이었다.

하지만 엄마께서는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는 사이에 어린이날이 다가왔다.

엄마 아빠께서 놀이동산에 가자, 게임기를 사러 가자고 하여도 민호는 방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흥, 좋아! 선물 받기 싫다면 잘됐지 뭐. 난 돈 절약해서 좋고!”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하는 왕소금 엄마는 나들이옷을 벗으며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싱글 웃으셨다. 민호를 약올리기로 작정하신 모양이었다.

민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엄마가 미웠다.

‘혹시 우리 엄마 새엄마 아니야?’

어찌나 야박하게 구시는지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어떡하지? 벌써 ‘예뻐’라는 강아지 이름도 다 지어놓고 어린이날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

민호는 시무룩한 얼굴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았다.

그렇게 한낮이 지났을 때였다. 갑자기 집안에서 ‘망망’ 강아지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너무 강아지 타병을 했더니 환청이 생긴 걸까?’

민호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하지만 ‘망망’ 소리가 점점 더 크





게 들려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곧이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멈아, 아무래도 이번에는 네가 져야겠다. 저 녀석이 저렇게 몇 날 며칠을 애원하는데 도저히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왔다. 이게 바로 그 말티즌가 뭔가 하는 거라더라. 민호야, 할미가…….”

그 다음의 할머니 말씀은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다.

민호가 집안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왔으니까.

“야아, 강아지다, 강아지야!”

“역시 우리 할머니 짱이다. 짱!”

민호는 강아지를 안고 퐁퐁퐁퐁 뛰며 야단이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하얀 털이 부드러운 퐁퐁없는 말티즌였다.

그 때였다.

“아이고, 이 녀석아, 아직 조그만 아기인데 그렇게 들고 뛰면 놀라

잡아. 어서 이리 내려놓지 못해!”

어느 틈에 엄마께서 다가와 민호의 등짝을 한 대 세게 때리시고 강아지를 빼앗아 안으시는 게 아닌가?

“어, 엄마……?”

민호는 너무 놀라 그저 입만 떡 벌렸다.

엄마 입에서 ‘아기’라는 말을 듣고 뒤로 자빠질 듯 놀랐기 때문이었다. 엄마한테 얻어맞은 등짝이 아픈 것도 다 잊을 정도였다.

“너, 날마다 목욕도 시키고, 강아지 똥도 다 치운다고 약속했지? 참, 그리고 사료도 네가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산다고 했다, 알았지?”

엄마께서는 여전히 아기처럼 강아지를 보듬어 안고는 마치 군인처럼 딱딱한 목소리로 외치셨다.

“네, 네, 알았어요!”

민호는 그저 입이 함박만큼 벌어져서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멋진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날, 민호는 할머니께 감사의 뜻으로 특별한 선물을 드렸다. 바로 ‘무료 안마권’ 백 장이었다.

“할머니, 언제 어느 때라도 팔 다리, 어깨가 아프시면 이걸 내밀고



저한테 안마를 받으세요, 네?”

“호호, 알았다, 알았어!”

할머니께서는 주름진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셨다.

하지만 민호가 강아지 선물을 받고 막상 키워보니 힘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아직 길이 들지 않은 아기 강아지라 배변 훈련이 안 되어 그런지 아무데나 마구 똥을 싸다. 게다가 인형이 아닌 진짜 강아지를 목욕시키려니 그야말로 날마다 전쟁이었다.

예뻐는 비누칠한 몸으로 미끄러져 나가서 온 거실을 돌아다니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야단치시지, 정말 아수라장이었다. 게다가 자신이 모은 용돈으로 사료를 사겠다고 큰소리를 탕탕 쳤지만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민호는 엄마가 마트에 갈 때마다 온갖 애교작전을 펴서는 강아지 사료를 카트에다 쪽쪽 집어넣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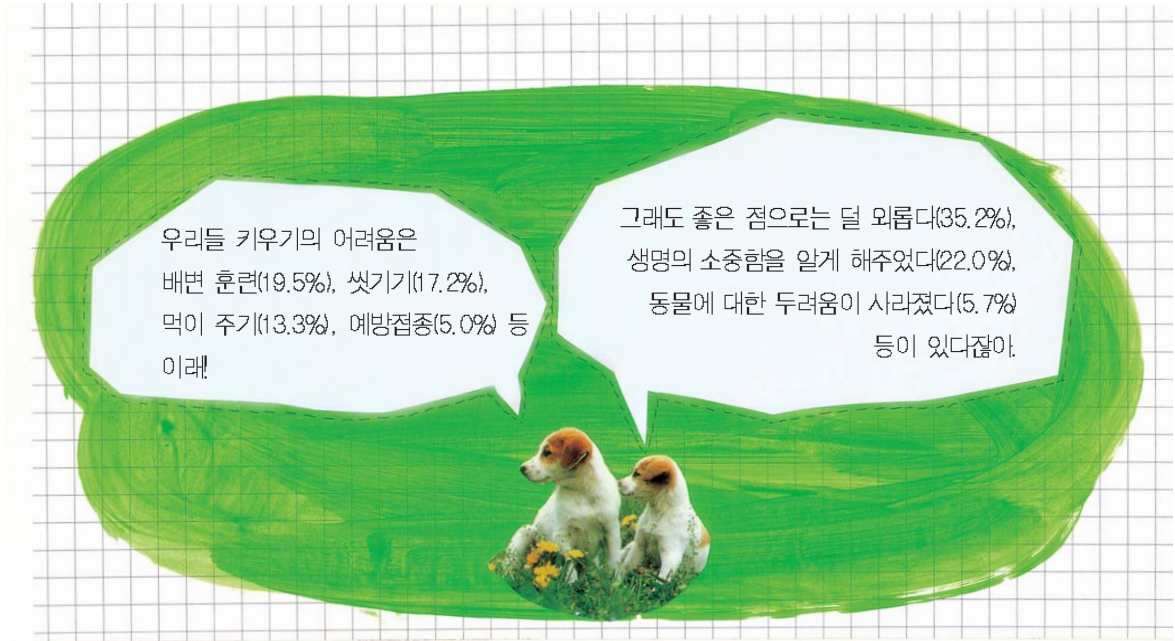
그런 어려움은 민호만 겪는 것이 아니었다.

애완견을 키우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보니 애완견을 키우는 어려움과 즐거움에 대한 글이 많이 나와 있었다

민호는 글을 읽으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바로 예뻐가 그런 어려움과 즐거움을 한꺼번에 다 주고 있었기 때

애완견 키우기의 어려움과 즐거움



문이었다.

“요놈아, 네가 바로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ㅎㅎ, 그래도 난 네가 좋아!”

민호는 예뻐의 콧등을 짹 깨물었다. 그러자 약이 오른 예뻐는 ‘망망’ 짖으며 민호를 물려고 발발거리며 달려왔다.



은영이가 소녀 가장이래요

민호는 학교에 다녀오기가 무
겁게 날마다 예뻐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예뻐
를 데리고 아파트 앞 공원 쪽
으로 나갈 때였다. 골목에 아
이들이 웅성웅성 몰려 서 있는
게 보였다.

‘무슨 일이지?’

민호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
가갔다. 몇몇 중학생 형들이 어떤 여자 아이 하나를 빙 둘러



러싼 채 으박지르고 있었다.

“너, 이런 고물 주워 판 돈 다 어떻게 했냐? 어서 이리 내놔봐!”

“없어요. 다 썼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흑흑.....”

그 여자 아이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민호는 속으로 흠칫 놀랐다.

‘아니, 재는 은영이잖아, 최은영!’

늘 옷차림도 초라하고 말이 별로 없어서 교실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던 최은영이 분명했다.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는 우리 반 아이란 말이야.”

민호가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들었다.

은영이는 갑자기 나타난 민호를 보고 놀라면서도 안심하는 눈치였다.

“아니, 이 꼬맹이는 또 누구람?”

“웁아, 같은 반 친구라고 편들어주려고 왔니? 까불지 말고 어서 꺼져!”

민호는 그 때서야 알았다. 이 형들이 바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서 돈과 물건을 빼앗는 아주 나쁜 형들이라는 것을 말이다.

‘음, 나 혼자서는 아무래도 힘들 거야. 그렇다면 좋은 수가 없을



까?’

민호는 그 때 문득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호루라기를 떠올렸다.

“휘익, 휘이익, 휘윙!”

민호는 부리나케 호루라기를 꺼내어 힘껏 불기 시작했다.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여기저기서 아이들이며 어른들이 무슨 일인가하고 몰려왔다.

“아니, 꼬, 꼬맹아, 너 뭐 하니, 엉?”

당황한 형 하나가 민호의 머리를 한 대 광 쥐어박았다. 그 때였다. 갑자기 예뻐가 와락 달려들어 그 형의 종아리를 짹 깨물었다.

“아아얏, 이 조그만 개새끼가 정말!”

그 형은 아픈 다리를 들고 경중경중 뛰며 약이 올라 어쩔 줄을 몰라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몰려오자 슬금슬금 꿈무늬를 빼기 시작하였다.

“야아, 예뻐야! 우리 예뻐 최고다, 최고!”

민호는 자기를 구해준 예뻐가 너무나도 기특해서 껴안고 뽀뽀를 하고 난리를 쳤다.

그 때였다.

은영이가 땅에 흩어져 있던 종이 상자와 신문지를 주섬주섬 주워 들고는 어디론가 후다닥 달려갔다.

“으, 은영아!”

민호가 아무리 불러도 은영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민호는 은영이가 떠난 뒤에도 끔찍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왜 저런 걸 주워다 파는 걸까?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걸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라도?’

민호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하긴 같은 반 친구이긴 하지만 은영이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다. 그저 말이 없고 늘 조용한 아이라는 것밖에는. 그리고 보니 은영이는 지각대장이었다. 일주일이면 서너 번쯤 지각을 해서 선생님께 꾸중을 듣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지각대장’이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다.

다음날, 학교에 간 민호는 얼른 은영이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은영이는 자리에 앉아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구깃구깃하고 초라한 옷을 입은 채.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파트 앞의 문방구에 갔던 민호는 깜짝 놀랐다. 문방구 앞에서 아저씨와 은영이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다. 은영이의 옆구리에는 두꺼운 종이상자가 몇 개나 들려 있었다.

은영이는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떴다. 종이상자가 들고 가기에 버거운지 가다가 쉬다가를 반복했다.

민호는 은영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방구 아저씨께 물었다.

“아저씨, 저기 가는 재 잘 아세요?”

“누구? 아, 은영이 말이나? 알다마다. 쫓쫓, 저 녀석 정말 딱해서 못 보겠다. 아, 그렇게 곱게만 자라던 녀석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를 잃고 고아가 되었지 뭐냐. 그런데다 남동생과 은영이를 돌봐주시던 할머니마저 병이 나서 몸져눅는 바람에 저

어린 나이에 소녀 가장이 되었다.”

“네에?”

민호는 ‘소녀 가장’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왜, 놀랐니? 하긴 엄마 아빠가 살아 있었으면 마냥 응석이나 부릴 나이에 안됐지. 어린 남동생하고 할머니를 돌보느라 날마다 학교가 끝나고 나면 저렇게 종이를 주우러 다니니 말이다. 그깟 것 팔아봤자 몇 푼이나 된다고, 쫓쫓!”

문방구 아저씨께서 혀를 끝끝 차셨다.

민호는 그만 무엇인가가 목에 걸린 듯 답답해졌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밥을 먹을 때도 조그맣고 가녀린 몸으로 종이 상자를 안고 힘겹게 걸어가던 은영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아니, 애가 밥숟가락을 들다 말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밥 맛이 없어?”

엄마께서 무슨 일이냐는 듯 물으셨다.

“엄마, 우리 반에 은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소녀 가장이래요.”

민호는 시무룩한 얼굴로 조금 전에 본 일을 말씀드렸다.

“저런, 정말 가엾구나.”



“쫓쫓, 해마다 소년소녀 가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구나. 그런데도 사람들이 불우한 아이들에 대해 무관심하니 큰일이지.”

엄마 아빠의 얼굴도 어느덧 어두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무심코 은영의 자리를 바라보던 민호는 깜짝 놀랐다. 첫째 시간이 끝나도록 은영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오늘은 아예 두 시간쯤 늦게 올 모양인가?’

민호는 걱정스레 은영이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은영이는 그날은 물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다음날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은영이가 사흘째 내리 결석을 한 날 아침, 담임선생님께서 무겁게 입을 여셨다.

“은영이가 지금 몹시 아프다는구나. 그 동안 우린 같은 반 친구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은영이는 2년 전, 엄마 아빠를 교통사고로 잃고 할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마저 병으로 자리에 드러눕자 그 동안 어린 은영이가 밥을 해먹고 2학년짜리 동생을 학교에 보냈단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할머니 대신 고물을 주워 고물상에 팔아서 겨우겨우 살았다는구나. 물론 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

자들에게 주는 보조금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세 식구가 살 수 없었거든.”

민호는 선생님의 눈에 얼핏 눈물이 어리는 걸 보았다.

“은영이가 그래서 아침마다 자꾸 지각을 했던 거란다. 할머니 진지를 차려드리고 어린 동생 뒷바라지를 하고 학교에 데리고 오는 타고.”

선생님의 설명에 아이들은 ‘지각대장’이라고 놀려댄 걸 떠올리며 몸둘 바를 몰랐다.

그 때 민호가 가만히 말을 꺼냈다.

“선생님, 200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전체 소년소녀 가장 6,184명 중에서 초등학생 가장이 1,309명이라고 해요.”

민호가 며칠 동안 찾아낸 통계 자료를 꺼내자 선생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민호는 정말 통계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 그 숫자는 아주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수란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달동네에 살면서 전기 요금, 수도 요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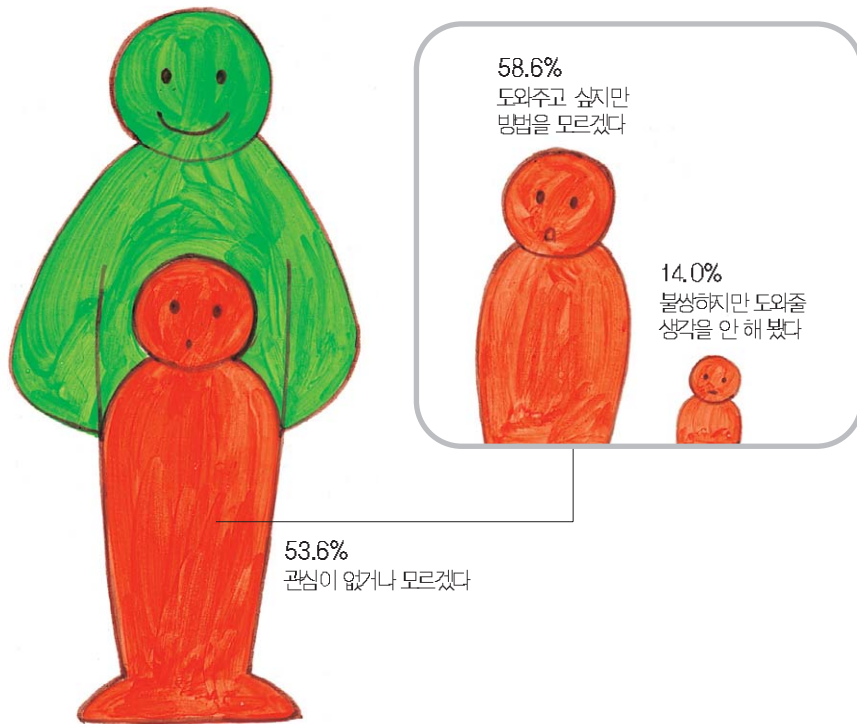


랍들이 불우한 이웃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 얼마 전 그걸
뒤편잡히는 통계가 너희들이 보는 ‘어린이 신문’에도 실렸더구
나. 자, 보련?”

선생님께서 도표를 보여주셨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6퍼센트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
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했다는구나. 그 중 58.6퍼센트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했고, ‘불쌍하지만 도와줄 생각을 안 해봤다.’는 응답도 14퍼센트나 되고 말이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민호는 속으로 짙컴하였다. 그동안 단 한번도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한 동안 은영이 혼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나? 그러니 내일 학급회의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은영이를 도우면 좋을지 각자 자기 의견을 생각해오기 바란다. 알았지?”

선생님께서서는 아이들을 둘러보시며 다짐하셨다.

그날 밤 민호는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에 대해 곰곰 생각하다 보니 그저 아무 때나 불을 탁탁 켜고 샤워할 때도 물을 마구 틀어놓고 쓴 게 미안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엄마 아빠도 없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소년소녀 가장이 많다는 게 마냥 놀라울 뿐이었다.

‘아, 나한테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금 나와라, 똑딱! 은 나와라, 똑딱! 해서 불우한 이웃들을 다 도와주게.’

민호는 엄마 아빠의 따스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 깨달았다.

마침내 다음날 학급회의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회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각자 자기가 생각해온 의견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쌀을 걷어서 주자.”

“당번을 정해서 은영이네 집을 찾아가서 집안일을 도와주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어머니들의 도움을 받아서 김치나 반찬을 해주도록 하자.”

“할머니의 병간호를 돕자.”

“은영이와 은영이 동생의 공부를 돕자.”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그럼 자원봉사를 언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손을 들어 조사한 후에 그걸 통계로 나타내면 어떨까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쿡쿡 웃음이 터졌다.

민호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통계’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민호의 말에 대찬성이었다. 그게 의견을 결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민호의 의견에 따라 회장은 안건을 칠판에 적었다.



첫째, 자원봉사를 하는 날씨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둘째, 자원봉사를 하는 방법은 혼자 한다, 아이들끼리 모둠을 짜서 한다, 어머니 한 분씩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

각 안건에 대해 손을 들어보니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급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아이들은 며칠 후부터 은영이를 돕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어머니 자원봉사자들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해주시는 바람에 모든 게 쉽게 이루어졌다.

아이들은 쌀과 용돈을 모으고 어머니들께서도 아이들과 함께 이불 빨래며 집안 청소, 김치며 반찬을 해주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퍼지자 은영이의 동생인 2학년 5반 은철이네 반 어머니들도 서로 돕겠다고 하셨다.

그러자 비가 새고 거미줄이 쳐져 있던 은영이네 단칸방은 점점 깨끗하고 아담한 방으로 변해갔다. 또 어머니들께서는 힘을 모아 은영이 할머니께 한방 치료를 받게 해주셨고, 은영이와 은철이의 공부 뒷바라지까지 해주셨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갈 때였다.

“민호야, 같이 가!”

뜻밖에도 은영이가 민호를 불렀다.

“어,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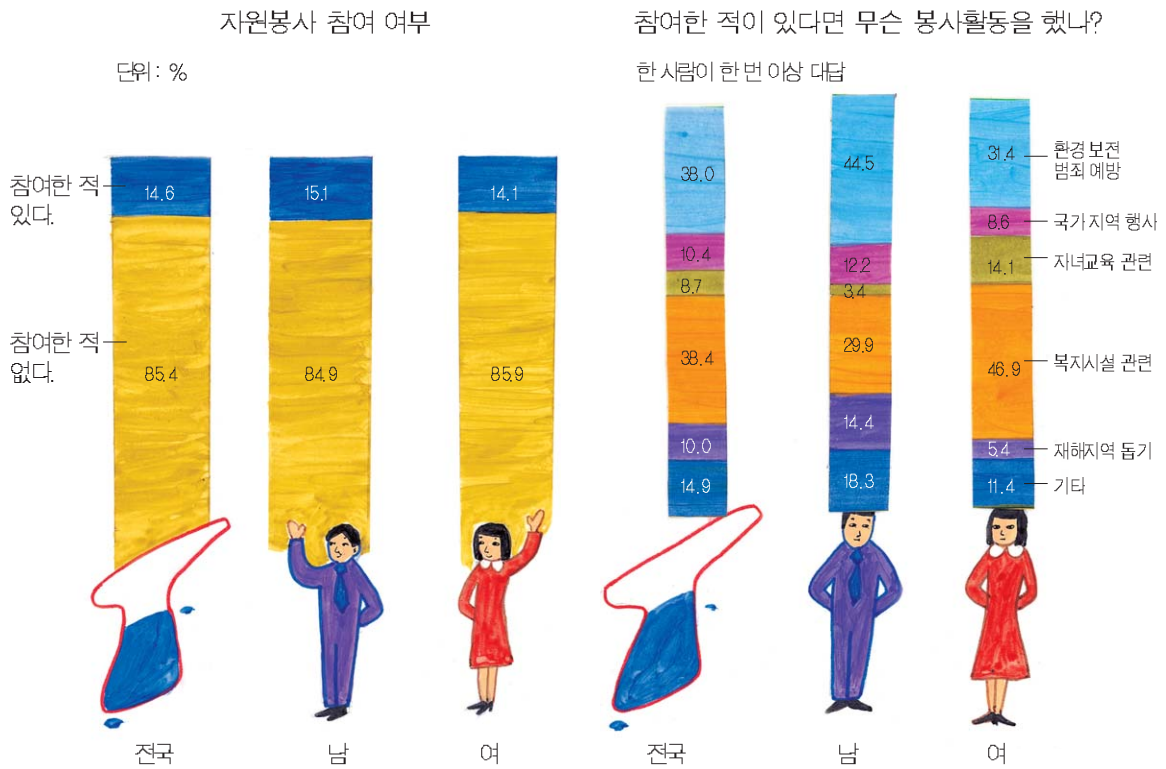
오히려 민호가 수줍게 대답하였다. 은영이가 민호 옆으로 다기와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그날 고마웠어. 나쁜 중학생 오빠들이 나를 괴롭힐 때 구해줘서. 그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도망을 간

거야. 미안해.”

“아, 아니야! 내가 구해준 게 아니라 우리 예뻐가 구해줬는걸 뉘.”

민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자원봉사활동 자료를 보면 남녀 모두 ‘참여한 적이 없다.’가 ‘참여한 적이 있다.’보다 월등히 많이 나타났다. 참여한 봉사활동으로는, 남자는 ‘환경 보전, 범죄 예방(44.5%)’ 분야에서, 여자는 ‘복지시설 관련(46.9%)’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봉사활동 분야의 남녀 차이를 알 수 있다.



“맞아, 네 강아지 정말 영리하더라. 그 오빠의 다리를 짹 물어줄 때 내가 얼마나 통과했다고. 호호, 내가 나중에 뼈다귀 하나 얻어다 준다고 그래. 알았지?”

은영이는 아주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런 은영이를 보며 민호는 깨달았다. 아이들과 자원봉사자 어머니들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을 부려서 은영이가 달라졌다는 것을.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쉬는 시간만 되면 민호네 교
탁 앞은 언제나 신보람 차지였다.

장래 희망이 가수인 보람이는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처럼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춤까지
췄다.

“야아, 신보람, 짱이다, 짱!”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
다.

그러다가 장차 코미디언이 되고 싶
는 초롱이가 나와서 익살맞은 표정으로 코미디언 흉내를 내면 교실



은 그만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날도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는 줄도 모르고 초롱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있었다.

“자, 이제 공부해야지, 어서 자리에 앉으렴.”

선생님께서 아무리 그러셔도 잔뜩 들떠 있던 아이들은 순순히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앞자리에 앉은 준모가 큰 소리로 물었다.

“아니 뜬금없이 그건 왜 묻지?”

“알고 싶어요!”

“이야기해주세요!”

그렇잖아도 날씨가 더워지자 공부가 하기 싫던 아이들은 마침 잘됐다는 듯 졸라졌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마치 먼 옛날을 떠올리려는 듯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화가가 되고 싶었던단다.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행복했거든.”

선생님의 얼굴이 마치 소녀처럼 붉어졌다.



“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저렇게 잘 그리시는구나!”

예나가 교실 뒤쪽에 걸려 있는 선생님께서 그려신 꽃 그림을 가리키며 외쳤다.

“그럼, 우리 이번 국어시간에는 장래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셨다.

“네, 네! 좋아요!”

아이들은 책상을 두드리며 좋아하였다.

“그럼, 우선 각자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볼까?”

아이들은 너도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선생님, 과학자, 운동선수, 가수, 탤런트, 국회의원, 대통령, 군인, 판검사나 변호사, 건축가, 사육사, 사장이 있었다.

그때였다. 영미가 조심스레 손을 들고 말했다.

“저는 그냥엄마가 되고 싶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엄마요!”

“우하하!”



아이들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영미의 말에 까르르 웃었다.

하지만 민호는 영미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매일 밖에 나가 일하는 엄마보다 집에서 자기를 따뜻하게 돌봐주는 그런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걸.

영미의 말에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는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세상에서 ‘엄마’라는 직업만큼 훌륭한 직업은 없단다. 엄마는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사장이나 마찬가지로거든. 좋은 엄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과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니까.”

“그래도 전 간호사를 하고 싶어요.”

은영이가 말했다. 아픈 할머니를 위해 빨리 커서 간호사가 되고 싶은 거였다.

“그래, 모두 좋은 꿈을 가졌구나.”

선생님께서 흐뭇한 얼굴로 아이들을 둘러보셨다.

하지만 민호는 그렇게 몇몇 아이들의 의견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떤 장래 희망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

사를 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아휴, 저 못 말리는 통계 박사!”

“김민호, 너 또 통계 타병이냐?”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야유를 퍼부었다.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너희들의 장래 희망은 무엇이며, 무엇을 제일 많이 하고 싶어하는지 잘 알 수 있겠지.”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자기가 원하는 장래 희망을 종이에 적어 낼까요?”

민호는 신바람이 나서 말했다.

“그래, 다들 자기가 원하는 걸 적어 내렴.”

“아휴, 저 민호 녀석, 알아줘야 한다니까!”

최우열이 툭툭대며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재미있다는 듯 종이에 재빨리 자기의 장래 희망을 적어냈다.

회장, 부회장이 앞에 나가 아이들이 쓴 쪽지를 한 장 한 장 펼쳐가며 칠판에 바를 정(正) 자를 표시해 나갔다.

그러자 정말 다양한 장래 희망들이 나타났다. 애완견 미용사, 컵



퓨터게이머, 고고학자, 바둑 기사, 만화가, 영화감독, 모자 디자이너
 등등. 그런가 하면, 만화가계 주인, 여행사 사장, 곤충학자, 모델, 우
 주 비행사,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출판사 사장, 신문기자 등 다양하
 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래 희망은 역시 연예인이 거의

20퍼센트로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선생님이나 학자였으며, 프로 그레머, 군인(경찰, 소방관), 운동선수, 의사나 간호사, 판검사나 변호사, 과학자, 회사 사장이 그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 현모양처도 한 명씩 있었다.

“그래, 직접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 요즈음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구나. 이게 모두 우리 반 통계 박사 민호 덕택인걸! 그런데 민호는 장래 희망이 뭐지?”

선생님께서 느닷없이 민호를 바라보며 물으셨다.

“저는 이다음에 커서 진짜 통계 박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과학이나 의학, 사회, 농업, 그 어느 분야에서나 통계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될 테니까요!”

“아이고, 내 그릴 줄 알았다, 알았어!”

민호의 대답에 아이들은 와르르 웃어댔다.

“그래, 그건 민호 생각이 옳단다. 시대가 더욱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한눈에 모든 걸 비교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더욱 필요로 하거든.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만 늘어놓는 것보다 이것들을 정리하여 통계 자료를 내놓으면 훨씬 설득력이 있으니까. 너희들, 엄마



아빠가 보시는 신문이나 잡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을게다. 요즘 전화 조사나 인터넷 조사에 의한 통계 자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이다. 그만큼 통계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예를 들면 어떤 통계가 있나요?”

“아휴, 셀 수도 없이 많지. 우선 5년 전과 비교해서 휴대폰이 얼마나 증가했나? 사람의 수명은 얼마나 늘어났나? 외국 여행자의 숫자는 어떻게 달라졌나? 인터넷 이용자는 얼마나 많아졌나? 물가는 어떻게 달라졌나, 한 시간에 태어나고 죽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인가.....등등이란다.”

“호호, 맞아요, 민호가 하루에 몇 번이나 통계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그것도 통계로 나타낼 수 있고요!”

수지가민호를 보며 놀려댔다.

“하하하!”

“호호호!”

아이들이 민호를 보며 웃어댔지만 민호는 그래도 좋았다.

‘그래 뭐, 난 이다음에 진짜 통계 박사가 될 테니까.’



나는 왜 키가 작을까?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날이었다. 민호는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서 학교로 달려갔다.

아이들은 모두 검정 강아지처럼 까맣게 탄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고작 40여 일 동안 만나지 못했을 뿐인데 마치 몇 년 만에 만나는 듯이 말이다.

특히 민호는 더욱 빨리 개학하기를 바랐다. 그건 바로 강유리 때문이었다.

강유리는 5학년 3반 여자 아이들 중에서 민호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였다. 성격이 활달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잘하고, 게다가 공부도 잘하고 웃을 때마다 오른쪽 뺨에 생기는 볼우물이 여간 귀여운 게 아니었다.





민호는 지난 5월 우연히 둘이 공원에서 만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이후로 유리와 부쩍 친해졌다. 가끔 같이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에 가기도 하고, 떡볶이나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정도

로 말이다. 하지만 민호는 여름방학 내내 유리를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다. 유리가 방학 내내 미국 뉴욕에 있는 이모네 집에서 지내다 올 거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유리가 왔을까?’

민호는 교실을 돌레돌레 바라보았다. 그 때였다.

‘앗, 유리다!’

유리가 아이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하며 교실로 들어서는 게 보였다.

이다음에 커서 방송작가가 되고 싶다는 유리는 언제나 소공녀에 나오는 세라처럼 이야기를 꾸며서 말하기를 좋아했고, 유리 주변에

는 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유리야, 안녕!”

민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유리도 민호를 보며 활짝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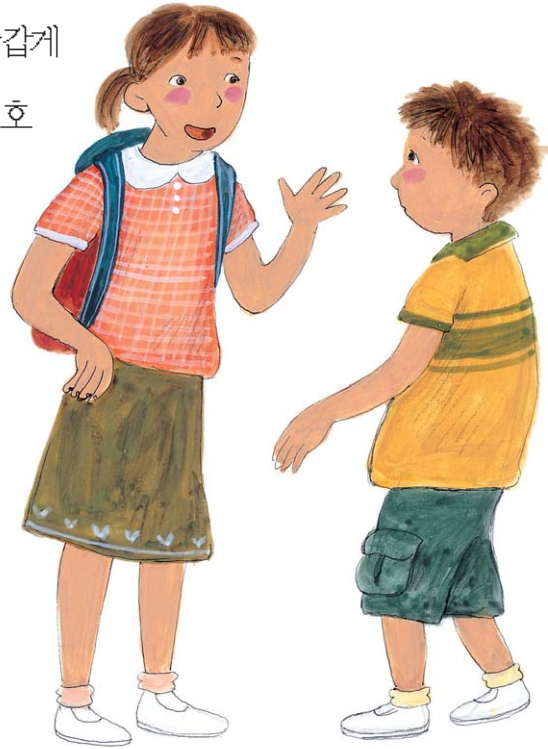
“응, 민호야, 너도 잘 있었니?
어머, 그런데 너 방학 동안에
왜 이렇게 땅꼬마가 됐니?”

유리가 킁킁 웃으면서 민호의 아래위를 번갈아 쳐다보는 게 아닌가?

“뭘, 따, 땅꼬마라고?”

민호는 기가 막혔다. 만나자마자 남자 친구한테 ‘땅꼬마’라고 놀려대다니. 땅꼬마라는 말은 아주 키가 작은 아이들을 놀릴 때나 쓰는 말이 아닌가? 민호는 자기 반에서 그런 대로 키가 큰 편이었는데 말이다.

그러나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누가 봐도 유리의 키가 한 뼘쯤이나 훌쩍 자라있었으니까.



‘아니, 방학 동안 미국에서 키 크는 약을 먹고 왔나?’

민호는 울그락불그락 잔뜩 약이 올라서 씹씹거렸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방학 전까지만 해도 첫가락 두 짝처럼 거의 똑같았던 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졌는지 말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민호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교실로 들어서는 아이들을 하나, 둘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앗, 이상하다! 여자 아이들이 대부분 남자보다 크잖아!’

키가 작아서 항상 앞자리에 앉던 희정이조차 어쩐지 부쩍 자란 느낌이었다.

민호는 개학 첫날부터 영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 내가 우유를 마시지 않아서 그런 거야. 우유나 멸치처럼 칼슘이 많은 걸 먹으면 뼈가 튼튼해져서 키가 쑥쑥 자랄 텐데 말이야.’

집에 돌아온 민호는 ‘땅꼬마’라는 모욕적인 말을 떠올리며 우유를 통째로 들고 벌컥벌컥 마셨다.

그 때였다.

“아휴, 그렇게 입을 대고 마시면 어떻게 하니. 할머니도 드려야 하

고 엄마 아빠도 마셔야 하는데.”

엄마께서 민호의 손에 든 우유통을 와락 빼앗으셨다.

그 바람에 민호는 입 속에 들어 있던 우유를 하마터면 다 뱉어낼 뻔했다.

“어, 엄마! 너무해요!”

민호는 입가에 묻은 우유를 닦으며 투덜댔다. 그러곤 생각났다는 듯 엄마께 물었다.

“엄마, 저희 집에 멸치 있지요? 오늘 저녁에 멸치 볶음 좀 해주세요.”

“어머나, 웬일이니? 멸치라면 질색을 하던 애가?”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지셨다.

그날 저녁 엄마는 멸치 볶음 반찬을 해주셨다.

민호는 다른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멸치 볶음을 우적우적, 와작 와작 열심히 먹었다.

그 다음날부터 민호는 자고 일어나면 방문 옆에 붙여놓은 키재기 표에 서서 키를 재보는 게 일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우유를 마시고 멸치를 먹어도 눈금은 147센티미터에서 늘어나질 않았다. 아마도 유리는 155센티미터를 훌쩍 넘어섰을 텐데 말이다.



‘아휴, 재크의 콩나무처럼 키가 쪽쪽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민호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리보다 키가 커졌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칭, 우리나라의 프로 무대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농구 선수들은 자고 일어나면 키가 크다던데.’

민호는 그들이 부럽기만 할 뿐이었다. 그런 선수들은, 팀 당 두 명의 신장 합계가 4미터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키를 재는 시간을 언제나 오후 2시로 한다는 것이었다. 오전에는 몸의 근육이 느슨해져서 오후보다 키가 더 크게 나오기 때문이란단다.

‘음, 그렇다면 나는 반대로 오전에 재 봐야지!’

민호는 될 수 있는 대로 아침에 키를 재보았다. 하지만 겨우 0.1센티미터쯤 차이가 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보니 막내 이모께서 이제 갓 백일이 지난 동생 슬기를 데리고 놀러와 계셨다.

“우와, 이모, 아기가 뭘 먹고 이렇게 자랐어요?”

민호는 몰라보게 토실토실해진 슬기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그거야 분유 먹고 컸지. 사실은 모유를 먹여야 하는데 이모가 워낙 몸이 약해서 그런지 젖이 잘 안 나오지 뭐니.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유를 먹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쑥쑥 잘 자라서 얼마나 기쁘지 몰라.”

이모께서는 슬기를 보기만 해도 대견한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셨다.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이 전깃불이 반짝 켜진 듯 환해졌다.

‘웅아! 그거야, 그거!’

이모께서 가지고 나자 민호는 부리나케 용돈을 꺼내 들고 슈퍼로 달려갔다. 그러곤 누가 볼세라 얼른 아기 분유 파는 곳으로 갔다. 하지만 분유의 종류가 너무 많았다. 이유식이다 영양식이다 해서 도무지 어느 걸 사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우와, 큰일 났다!’

민호는 이것저것 들었다놔다 하다가는 간신히 분유 한 통을 들고 계산대 쪽으로 갔다.

그런데 민호가 마약 분유통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을 때였다.

“어머, 땅꼬마, 너희 집에 아기 있니? 너희 엄마가 동생이라도 낳았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하필이면 그 순간 유리와 딱 마주친 것이었다.

“아, 아니, 이, 이모가 아기를 낳았거든, 그, 그래서…….”

민호는 어떻게 계산을 끝내고 돌아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고 등허리에서 땀이 줄줄 흘렀다.

‘아휴, 나쁜 기집애. 땅꼬마가 뭐야. 다시 한 번만 그랬단 봐라!’

민호는 뒤늦게 부아가 일었다. 하지만 장애물은 슈퍼 앞 계산대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분유통을 몰래 숨겨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너, 등 뒤에 있는 게 뭐니?”

엄마께서 민호를 보고 수상쩍다는 듯 물으셨다.

“아,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학교 가지고 갈 준비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숨겨서 가지고 와? 난 또 뭐 대단한 거래도 되는 줄 알았네.”

엄마께서는 대수롭지 않은 듯 주방 쪽으로 가셨다.

‘야호, 성공이다!’

간신히 방안으로 들고 들어온 민호는 부리나케 분유통을 땀다. 그 리곤 그 안에 들어 있는 스푼으로 한 숟가락 가득 퍼서는 입안에 털

어 넣었다. 하지만 급히 먹다가 사레가 들리고 말았다.

“에취, 에, 에취…….”

채채기를 하자 입안에 들어 있던 하얀 분유 가루가 모두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뿐이 아니었다. 분유 가루가 목안에 걸려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목이 메었다.

민호는 후다닥 달려 나가 냉장고 안의 물을 꺼내어 벌컥벌컥 마셨다. 다행히 주방 쪽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아휴!’

식구들 몰래 분유를 먹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호는 걸레를 가져다가 방안 여기저기 흩어진 분유 가루를 닦아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뻐는 그 옆에서 혀를 날름날름거리며 분유를 훑아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야, 이건 네가 먹는 거 아니야. 내가 먹고 빨리 키가 자라 건방진 유리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한단 말이야, 알았지?”

민호는 예뻐에게 하소연하였다.

그러던 며칠 후, 학원에 다녀온 민호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식구들 몰래 숨겨두고 먹던 분유통이 떡억 식탁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게 아닌가?



“너, 도대체 이게 뭐니? 왜 이런 걸 숨겨두고 혼자 먹었냐고? 예뻐가 이 냄새를 맡고는 어떻게든 이걸 열어보려고 멍멍 짓고 야단이잖니!”

엄마께서는 분유통을 들고 따져 물으셨다.

민호는 어이가 없었다.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분유통을 예뻐 때문에 들키고 말다니!

“아휴, 너 때문에 내가 못살아, 못살아!”

약이 오른 민호는 예뻐를 발로 툭 걷어찼다. 그러자 예뻐는 제 잘못을 아는지 꺽꺽거리며 꼬리를 잔뜩 내리곤 엄마 옆으로 몸을 숨겼다.

“아니, 이 녀석아, 왜 말 못 하는 짐승을 괴롭히고 그래? 어디, 말 좀 해봐라.

도대체 얼뚱아기도



아닌데 왜 이런 걸 숨겨놓고 먹었냐고?”

엄마께서는 마치 수사관처럼 따지고 드셨다.

민호는 증거물이 눈앞에 있으니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없었다.

“.....치, 우리 반 어떤 여자 애가 저보고 땅꼬마라고 놀려대잖아
요.....”

민호는 그 동안의 일을 엄마께 다 말씀드렸다.

“뭐어?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던 우유랑 멸치를 그렇게 열심히 먹
은 게야?”

민호는 속상해 죽겠는데 엄마께서는 뭐가 그리 우스우신지 입꼬
리 가득 웃음을 머금고 물으셨다.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키가 안 크는걸요, 뭐!”

민호는 엄마께 들켜 무안한데다 그 동안 혼자 고민했던 게 생각나
자 눈물까지 핑 돌았다.

“그러니까 이거 좀 사주세요!”

민호는 주머니에 든 구겨진 광고 종이를 꺼내어 내밀며 투명스레
말했다. 아이들이 폐품으로 낸 신문에 실린 광고를 몰래 찢어 온 것
이었다.

“그게 뭘데?”

엄마께서는 민호가 내민 신문 쪽지를 받아 보셨다.

거기엔 〈잠자기 전에 10분이면 키가 쑥쑥〉이라는 큰 글씨가 씌어 있었다. 즉, 이 기구를 이용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져서 키가 자라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잠자기 전 하루에 10분씩만 하면 말이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혼자서 고민 고민했던 말이니?”

엄마께서는 여전히 장난스런 표정으로 물으셨다.

“엄마, 진짜 속상해 죽겠단 말이어요. 우리가 땅꼬마라고 놀릴 때 의 제 기분을 아시냐고요!”

민호는 거의 울 듯한 얼굴로 대들었다.

그러자 엄마께서는 서재로 가서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들고 나오셨다.

“민호야, 이걸 엄마가 대학 다닐 때 보던 아동발달에 관한 책이란다. 이걸 보면 네가 지금 왜 우리보다 키가 작은지 이해할 수 있을 게다. 음, 어디 보자.”

엄마는 목차에서 어느 한 대목을 찾아 펼치고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민호야, 사람의 일생을 보면 대체로 3차에 걸친 성장(성적인 특

징)이 나타난단다. 그런데 1차 성징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별로 다르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다가 남자 여자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춘기란다.”

사춘기라는 말에 민호는 귀가 솔깃해졌다.

“.....그러니까 1차 성징이 성장 호르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2차 성징은 성 호르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란다. 그 때부터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가슴이 나오고 엉덩이가 커지는 등 더욱 여자답게 되고,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 때문에 목소리가 변하고 뼈대도 더욱 남자답게 변하는 거지.”

“그래서요?”

민호는 엄마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듯 불멘소리로 물었다. 여자, 남자의 몸에 대해서 이미 보건선생님께서 비디오 수업을 하시며 보여준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 네가 우리보다 키가 작은 비밀의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단다. 즉,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자들은 대부분 생리를 하게 된단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그 생리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몰라보게 키가 쑥쑥 자란다는 거야. 민호야, 그런 신체적 변화가 정말 신기하지 않니?”

“뭐가요?”

민호는 ‘생리’라는 말에 괜히 얼굴이 빨개져서는 통명스레 물었다.

“여자가 생리를 시작하면 그건 바로 이제부터 ‘엄마’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생각해보렴. 엄마가 되려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몸이 커져야 하잖아. 바로 그런 이유란다. 우리가 지금 너보다 키가 부쩍 자란 게 말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쑥쑥 자라는 건 아니야. 생리가 시작되고 나면 그리 많이 자라지 않거든.”

“그럼, 저는 언제 자라요?”

그 때서야 민호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 빛났다.

“남자들은 보통 16살을 전후해서 키가 부쩍 자라게 된단다. 호호, 지금처럼 우유나 멸치 같은 칼슘이 들어 있는 식품을 많이 먹는다

면 전봇대처럼 자랄지도 모르지!”

“그게 정말이에요?”

민호의 눈이 왕방울만큼 커졌다.

“그렇단다. 초등학교 때 앞자리에 앉아 있던 남자아이들 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갑자기 키가 불쑥 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까 괜히 지금부터 키가 작다고 기 죽으면 안 돼. 이 세상에는 키는 작아도 큰일을 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너, 중국의 지도자였던 덩소평 알지? 키가 무척 작았잖니. 그런데 오늘날의 중국이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덩소평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란다. 중요한 건 키가 아니라 마음 이란다. 사람은 무엇보다 마음이 커야 하는 거야. 알았지?”

엄마의 설명을 듣자 민호는 갑자기 먹구름이 잔뜩 끼었던 마음이 환하게 밝아오는 기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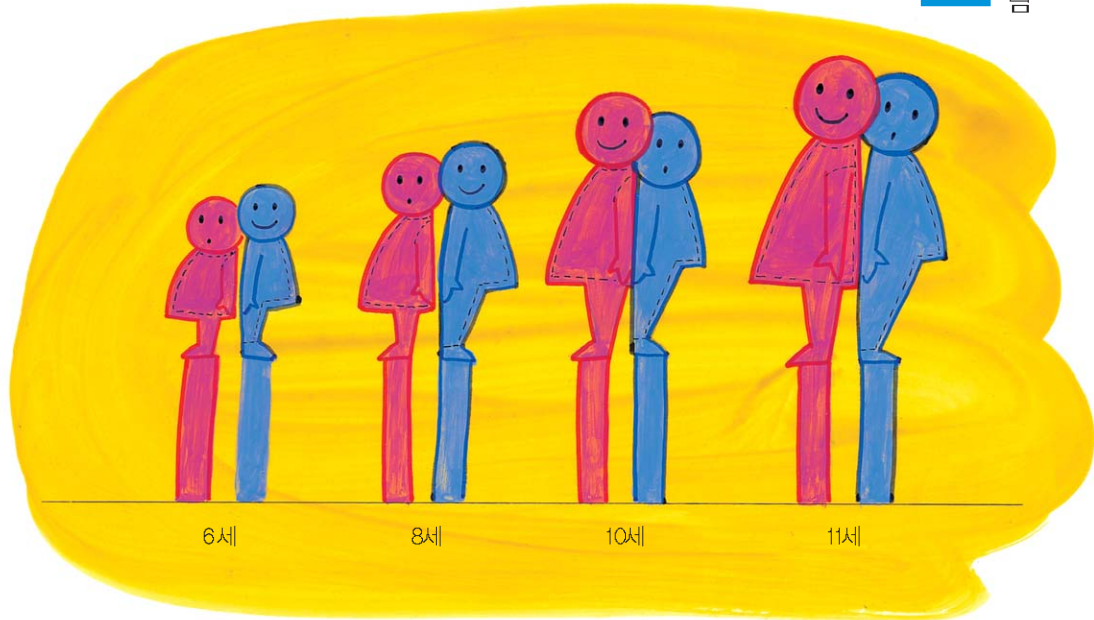
‘음, 그러니까 내가 유리보다 키가 작은 건 당연한 일이구나.’

민호는 그제야 ‘땅꼬마’라고 놀리던 유리에 대한 미움도 눈 녹듯 사라졌다. 오히려 유리에게 멋지게 복수할 걸 생각하자 저절로 싱글벙글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유리 너, 몇 년 후에 두고 보자! 내 키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 테야.’

어린이 평균 키 비교

여
남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어린이 신장에 관한 통계를 보니 6세에서 9세까지는 여자에 비해 남자의 키가 조금씩 더 컸는데, 10세가 되자 여자의 키가 남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 10세의 경우, 1990년에는 남자의 평균 키가 138.6센티미터, 여자의 평균 키가 139.3센티미터였고, 2003년에도 남자가 142.9센티미터, 여자가 143.5센티미터로 여자의 평균 키가 더 컸다.

민호는 유리 옆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유리보다 키가 서너 뼘쯤이나 훨씬하게 큰 모습으로 말이다. 우리가 민호를 보려면 아마 까치발을 해야만 할 것이다.

‘아휴, 고거 참 찝통이겠다!’

민호는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에 간 민호는 유리를 보자 다짜고짜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유리야, 안녕!”

“어머, 너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니?”

“아니, 너한테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서.”

“그게 뭔데?”

유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유리야, 있잖아, 지금 네가 나보다 키가 조금 큰 건 말이야…….”

민호는, ‘그건 바로 네가 곧 생리를 시작할 거라는 뜻이야’라는 말을 하려다가 말끝을 흐렸다. 다른 아이들이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했다가는 보나마나 유리가 홍당무가 되어 울고불고할 게 뻔했으니까.

“왜 그래? 뭔데 말을 못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유리는 자꾸만 재촉을 하였다.

“아, 아니야, 아무것도!”

민호는 얼른 손을 내저었다. 몸이나 키가 큰 것보다 마음이 커야

한다던 엄마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기 때
문이었다.

‘그래, 참자, 참아! 멋진 남자
김민호가 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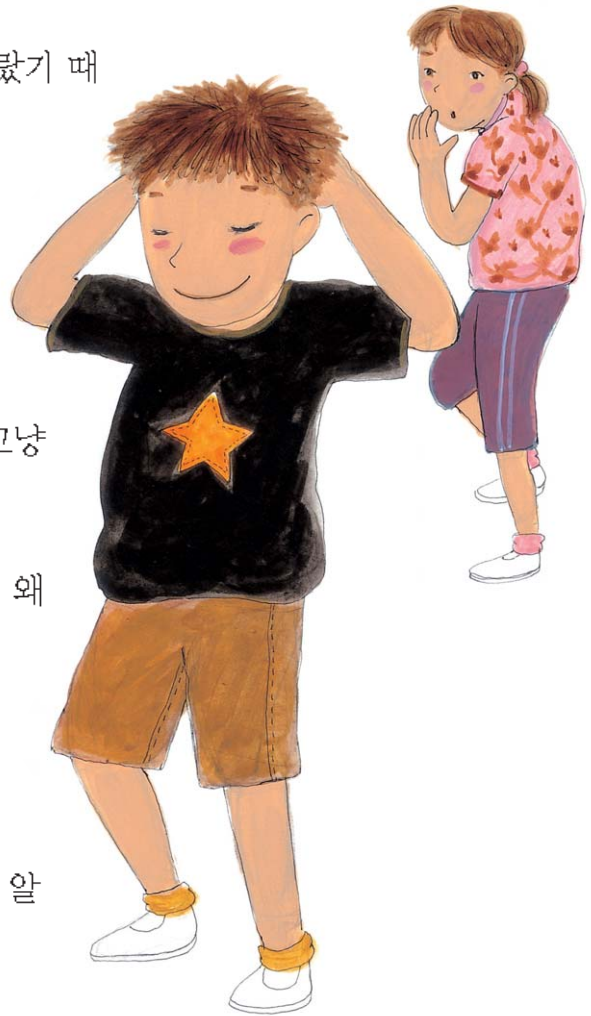
민호는 우리에게 멋지게 한
방 먹이려던 계획을 포기한 채 그냥
돌아서고 말았다.

“어머머, 애들아, 재 아침부터 왜
저러니? 정말 우습다, 그치?”

우리는 큰 소리로 웃으며 빈정
거렸다.

‘아휴,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
랴!’

민호는 그저 싱글싱글 웃을 뿐이었다.





내 용돈은 내가 관리해요

아이들이 체육을 끝내고 교실로 막 돌아
왔을 때였다.

갑자기 재형이가 허둥지둥 가방을 들추며 말
했다.

“어, 이상하다. 진짜 없네. 내 돈이 없어졌어!”

“뭐? 얼마데?”

“3,000원이야. 어제 외삼촌이 오셔서 주고 가신 거
란 말이야.”

재형이의 말에 아이들은 웅성웅성 떠들어대기 시작하였다.

“왜 이렇게 소란스럽니?”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다.



“선생님, 재형이 돈 3,000원이 없어졌대요. 체육 시간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대요.”

아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음, 돈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닐 테니 잘 찾아보거라. 책갈피나 뭐 어디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겠지.”

선생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잘 찾아 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재형이는 잔뜩 울 상을 지으며 대답했다.

“살살이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분명히 아까 여기 필통 속에 있었거든요.”

“음,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단 말이니…….”

선생님께서 어두운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셨다. 그러다간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모두 눈을 꼭 감고 앉아 있어라.”



교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우리 반에서 그런 분실사건이 일어나다니 선생님은 몹시 마음이 아프구나. 혹시 재형이의 돈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손을 들기 바란다. 그럼, 선생님은 이 일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가만히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민호는 괜히 죄지은 것도 없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체육 시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재형이 자리에서 얼쩡거렸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어쩌지?’

민호는 아이들이 자기를 의심할 것만 같아서 몹시 떨렸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는지 선생님께서 더욱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자, 됐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재형이의 돈을 가져간 사람은 선생님을 무척 슬프게 했구나. 나중에라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오기 바란다.”

선생님께서서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교실을 빠져나가셨다.



민호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선생님이 울음을 꼭 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민호도 눈물을 참으면 어깨가 뻗뻗해지곤 했으니까.

선생님께서 교실을 나가자 아이들은 웅성웅성 야단이었다.

“야, 도대체 누가 훔쳐갔나?”

“빨리 자수해라, 자수해!”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은근히 오늘 배가 아프다고 양호실에 갔다가 교실에 혼자 남아 있던 박도균을 의심하는 눈치였다.

도균이는 그런 아이들의 눈초리를 느꼈는지 약간 빨개진 얼굴로 떠듬거리며 말했다.

“아, 아무도 교, 교실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그도, 돈이 어, 어디로 갔지?”

“그러니까 말이야, 박도균, 교실에 남아 있던 건 너였잖아. 그런데도 모른단 말이야?”

“내, 내가 그, 그걸 어떻게 알아?”

도균이는 더욱 심하게 말을 더듬었다.

“흥, 그럼 귀신이 훔쳐갔나?”

아이들은 아무래도 도균이를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러자 도균이가 마침내 큰 소리로 외쳤다.

“그, 그럼, 내, 내가 가져갔단 말이야? 아니야. 난, 아, 안 그랬어. 봐, 내 가방을 여, 열어보란 말이야.”

그렇잖아도 조그맣고 비쩍 마른 도균이는 어린애처럼 울먹이며 말했다.

“자아식, 누가 너보고 가져갔대?”

아이들은 어쨌든 증거도 없이 도균이를 몰이붙일 수 없어서 슬그머니 꿈무늬를 뺐다.

하지만 누군가를 한번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 보이는 걸까? 아이들은 그 다음날부터 도균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며 수군거렸다.

“어제, 집에 가다가 봤는데 도균이가 빵집에서 빵을 한 봉지 사가더라.”

“그렇다면 도균이가 가져간 게 틀림없을지도 몰라. 그 날 교실에 남아 있었던 건 도균이 한 명뿐이잖아.”

“도균이가 저 위 산동네에 산대.”

도균이네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안 아이들은 자기들의 짐작을 더욱



더 믿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까지 덩달아 떠돌림을 받을까봐 될 수 있는대로 도균이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였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은영이만은 달랐다. 은영이는 아이들의 소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균이와 집에 갈 때도 같이 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이가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그날 도균이가 빵을 산 건 그날이 엄마 생신이었기 때문이었던데. 엄마께 예쁘고 맛있는 케이크를 사드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단팥빵 한 개를 사다가 성냥을 꽂고는 동생이랑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드랬대. 아빤 멀리 돈 벌러 가서 안 계시거든.”

“그랬구나.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도균이를 의심하다니.”

민호는 어떻게든 도균이의 억울함을 벗겨주고 싶었다. 하지만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선생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마. 얼마 전에 6학년 남자 아이 하나가 다른 반 교실에 들어가서 돈이랑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다는구나.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지난주에 5학년 3반 교실에 들어가서 어떤 아이의 필통에 든 3,000원을 훔쳤다고 얘기했대.”

“네에? 그, 그게 정말이에요?”

아이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말을 더듬었다.

“그래, 그 아이는 그렇게 훔친 돈으로 오락실에 다니고 패스트푸드점을 드나들며 군것질을 했다는구나. 집에서 받는 용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서 남의 교실까지 들어가 돈을 훔치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으박질러서 돈도 빼앗고 했단다.”

“아, 그 형이다, 족제비야!”

아이들 입에서 큰 소리로 ‘족제비’라는 말이 나왔다. 눈이 매섭게 찢어지고 덩치가 커서 아이들은 그 형이 바라만 봐도 벌벌 떨며 주머니에 든 돈이며 시계를 다 내주곤 했다.

“그럼, 이제 그 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다, 앞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구나. 그동안 난 너희들을 볼 때 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혼자 상상하곤 했거든.”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도균이를 의심하고 따돌렸던 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도 엄마 아빠가 주시는 용돈으로 부족할 때가 있니?”

“그럼요, 용돈으로 친구들 생일 선물도 사야 하고요, 좋아하는 가수의 테이프도 사야 하고 군것질도 해야 하니까요.”

유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

“맞아요, 맞아!”

반 아이들도 정말 그렇다는 듯 맞장구를 쳤다. 마치 선생님께서 용돈을 주시는 것처럼.

“그럼, 한 달에 도대체 얼마나 용돈을 받는지 우리 조사해볼까? 아참, 우리 반 통계 박사님이 나와서 조사를 해보렴.”

“네, 선생님!”

민호는 신바람이 나서 앞으로 나갔다.

“에, 여러분이 한 달에 용돈을 얼마나 받는지 조사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일이 물어서 하는 면접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반과 비교해서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고…….”

“아휴, 그만, 제발 그만!”

민호가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통계조사에 대해 늘어놓자 아이들은 손을 내저으며 야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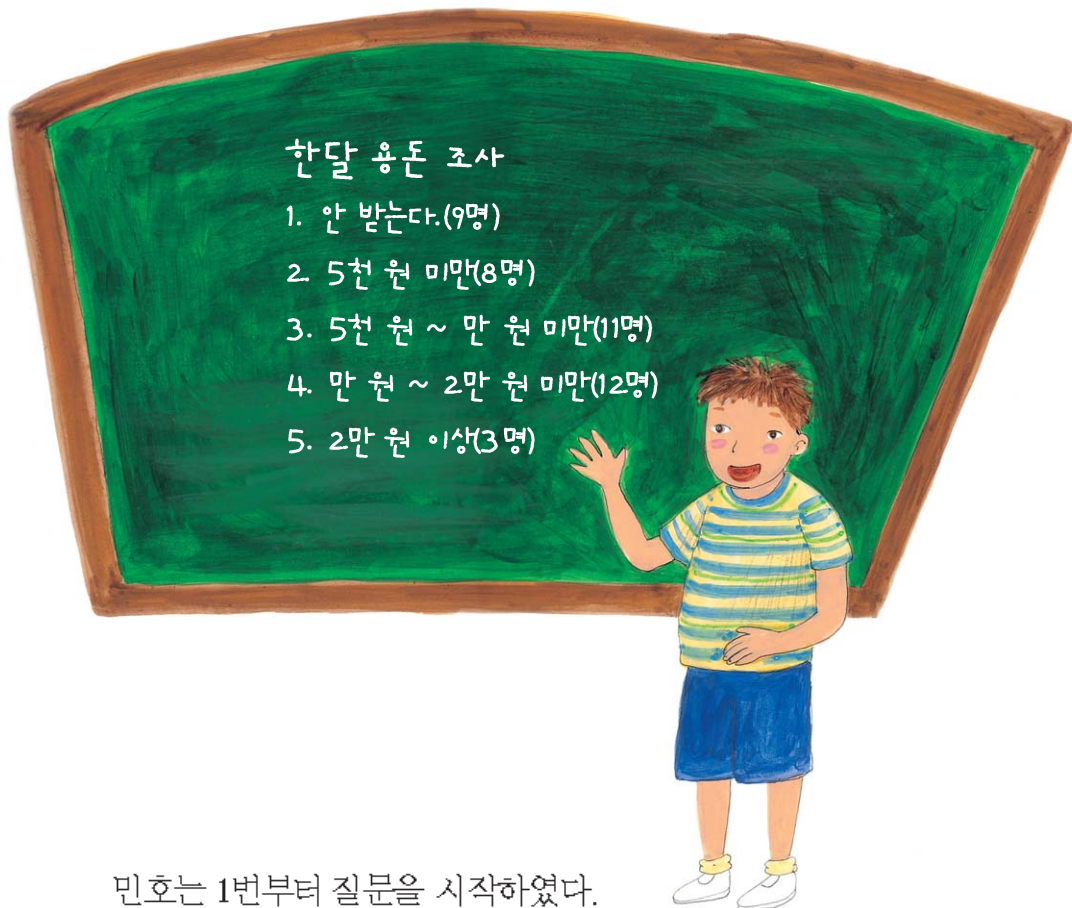
“호호, 민호가 정말 통계에 관한 공부를 많이 했구나. 하지만 지금은 우리 반만 조사 대상으로 할 거니까 간단히 손을 들어서 알아보면 어떨까?”

“네, 좋아요. 그러려면 우선 몇 가지 대답의 예시 항목을 정해야 해요.”

“그러렴.”

민호는 칠판에다 우선 대답 항목을 적기 시작하였다.

1. 안 받는다.
2. 5천 원 미만
3. 5천 원~만 원 미만
4. 만 원~2만 원 미만
5. 2만 원 이상



민호는 1번부터 질문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5학년 3반 43명의 아이들은 민호가 말하는 항목에 따라 하나, 둘 손을 들었다. 민호는 그 결과를 순서대로 각 항목의 옆에다 적었다.

그 결과를 보고 재욱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선생님, 용돈을 안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지요?”

“그건 용돈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받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받아서 쓴다는 뜻이란다. 너희들은 어떤 게 더 좋을 듯하니?”

선생님께서서 넌지시 물으셨다.

“그거야 필요할 때마다 받는 게 더 좋지요.”

몇몇 아이들이 희기양양하게 대답했지만 선생님께서서는 고개를 내저으셨다.

“그게 아니란다.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한 달에 돈을 얼마를 쓰는지 모르지 않겠니? 게다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받으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합리적으로 써야 하는지 경제관념도 생기지 않을 테고, 그러니 선생님 생각에는 한 달에 얼마씩 일정한 용돈을 받고, 그걸 언제 어디에 썼는지 용돈 기입장을 만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아이가 1,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모았다는 책도 나오지 않았니? 그게 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받은 용돈의 수입과 지출을 철저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길렀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단다. 어떠냐? 이다음에 부자로 잘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용돈 관리를 통해 ‘경제’와 친해지는 게 말이다. 아마 먼 훗날 너희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어머어마할 거야.”

“어떻게요?”

강승규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글쎄, 재미와 배짱이 차이라고나 할까? 돈을 아무 생각이나 계획 없이 쓰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획을 세워 짜임새 있게 쓰는 사람보다 경제능력이 없을 테니 아마도 부자가 되긴 어렵겠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일으켜 세운 창업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은 젊어서부터 돈을 무섭게 여기고 허튼 낭비나 사치, 허례허식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한단다. 너희들도 그런 절약정신을 본받아야겠지.”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에 만 원씩의 용돈을 받는 민호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많았다. 용돈을 받으면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아무 생각 없이 쓰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일주일도 못 가서 돈이 다 떨어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민호는 엄마 몰래 아빠나 할머니께 돈을 더 받기도 했다.

‘맞아! 이제부터 용돈 기입장을 써야겠어. 그래야 돈을 왜, 어디에 썼는지도 알 수 있고, 무엇 때문에 용돈이 모자라는지 엄마한테

증거를 내보일 수 있잖아.’

민호는 ‘쇠뿔도 단김에 빼다.’는 속담처럼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당장 문방구에 들러 조그만 수첩 모양의 ‘용돈 기입장’ 한 권을 샀다. 장차 신문에 나온 아이처럼 1,000만 원을 모으려면 철저하게 수입 지출을 적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헛돈을 안 쓰게 될 테니까.

하지만 아이스크림 집 앞을 지날 때였다.

민호는 멜론 아이스크림 맛을 떠올리자 저절로 입 안 가득 군침이 돌았다.

‘에이,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 안 될까?’

‘안 돼. 참아야 해.’

민호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생각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 때였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갑자기 승규가 나오는 게 보였다. 그것도 민호가 그렇게 사 먹고 싶어하는 멜론 아이스크림을 손에 떠억 들고서.

‘히얏,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구나! 바로 내게 기회를 주신 거야.’

민호는 속으로 쾌재를 외치며 큰 소리로 승규를 불렀다.

“야아, 강승규, 그거 참 맛있겠다. 나 한 입만 주라, 응?”

민호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달콤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덩석 베어 물었다.

“아니, 이, 이게 정말!”

얼떨결에 아이스크림을 빼앗긴 승규는 민호와 아이스크림을 번갈아 바라보며 분해서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뭐 어찌랴, 이미 아이스크림의 절반은 민호의 입 속에 들어가 있는걸.

‘웁지, 자린고비 작전이 바로 이거로구나!’

민호는 1,000만 원을 모았다는 어떤 아이처럼 절약을 생활화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뭐, 한자 신동은 아무나 되나요?

“민호야, 이리 와보렴.”

퇴근하고 들어오신 아버지께서 다짜고짜 큰 소리로 민호를 부르셨다.

“아빠, 왜 그러세요?”

“이것 좀 보라. 글쎄,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한자 1급 자격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지 뭐냐? 그 어려운 한자 4,000자 정도를 술술 읽고 쓸 수 있다는 게야. 민호 넌 네 이름자나 제대로 쓸 줄 아나 모르겠다. 엄마 아빠 이름이랑 할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성함은? 우리 집 주소는?”



아빠께서는 신문에 난 기사를 눈앞에 대고 혼드시며 말씀하셨다. 5학년이면 그런 정도는 한자로 쓸 수 있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 말이다.

“아, 또 그 얘기요?”

민호는 침드렁하게 대답했다. 벌써 오늘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그 ‘한자 신동’에 관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또 들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어린이 신문에 난 기사를 들려주셨다.

“글쎄, 2학년짜리 초등학생이 한자능력검정 1급 시험에 전국 최연소로 합격했다는구나. 한자 3,500자를 자유자재로 쓰고 읽을 수 있어야만 하는 어려운 시험에 말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 아이가 학원이나 과외도 받지 않고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그 자격증을 따냈다는 점이다.”

“네에? 정말이에요?”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다.

“그렇단다. 세 살 때 한글을 깨치고 유치원을 다니면서 재미삼아 본 8급 한자능력시험에 합격한 후 흥미를 가지게 되어 마침내 1급 자격증을 딴 거란다. 그 아이의 한자 공부 비결은 한글과 한자를

쥘어서 일기를 쓰는 것이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혼용 일기는 이제 옥편을 뒤지지 않고서도 한자로 술술 써 나갈 정도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니?”



선생님께서서는 정말 놀라운 뉴스라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아빠마저 퇴근하시자마자 또 그 ‘한자 신동’ 이야기라니.

‘도대체 그 꼬마 녀석은 왜 그렇게 한자 공부를 많이 한 거야? 지금이 과거시험을 치는 조선시대도 아닌데!’

민호는 알지도 못하는 그 꼬마 친구가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심통도 났다.

“자, 봐라, 이게 그 아이가 쓴 한문 일기란다.”

아빠께서 내민 신문에는 그 아이가 썼다는 한문 일기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하긴 네가 이걸 읽기나 하겠

니. 그저 까막눈이지.”

아빠께서는 아무래도 오늘 밤에 살살 민호의 비위를 긁기로 작정하신 모양이었다.

민호는 바짝 약이 올랐다.

“아빠, 저만 못 읽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반 아이들 다 못 읽을걸요! 그 애는 천재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뭐, 한자를 몰라도 손톱만 큼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컴퓨터에서 다 알아서 척척 다 한자로 바꿔주는걸요.”

민호는 한문 일기를 못 읽는 게 그리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이런, 민호야, 그 아이는 뭐 날 때부터 천재였는지 아니? 천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다. 노력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김민호, 오늘부터 아빠하고 한자 공부를 시작하자! 한자, 한자 천지문 공부를 하는 거야. 어때, 좋지?”

아빠께서는 마치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을 듯 서두르셨다.

하지만 민호는 조금도 한자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민호가 미처 싫다는 대답을 할 겨를도 없이 엄마가 불쑥 나서시는 게 아닌가.

기업들이 한자 능력을 평가하는 이유



“그래요, 여보, 당신 참 잘 하셨어요.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입사 시험에서 한자 시험을 보는 곳이 많이 늘어났대요. 그렇게 대기업들이 한자 공부에 관심을 갖는 건 중국, 일본 등

한자를 쓰는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자를 몰라서는 제대로 사업하기 힘들겠다는 위기감 때문이래요. 글쎄, 삼성그룹은 이견희 회장이 직접 ‘한자를 알면 중국, 일본 시장이 절로 보인다.’며 한자 시험 도입을 준비했대요. 또 ‘비즈니스 한자’라는 책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꼭 한자를 쓰도록 하고요.”

“당신 말이 맞소. 다른 대기업에서도 신입 사원을 뽑을 때 한자 시험을 별도로 치른다고 합디다. 그러니 우리 민호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자 실력을 쌓아 나가는 건 아주 좋은 일이지요.”

엄마, 아빠께서는 갑자기 한편이 되어 한자 공부의 중요성에 대하여 입을 모아 열변을 토하셨다.

이쯤 되면 민호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게 수였다.

“그럼, 좋아요! 아빠한테 배우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공부할래요. 그게 더 재미있을 테니까요.”

그러자 엄마께서 필적 뛰며 말리셨다.

“안 돼. 그러잖아도 지금 너 다니고 있는 영어 학원, 미술 학원, 보습 학원에다 학습지 값 대기도 벅찬데 또 학원을 다닌단 말이니? 네 학원비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아빠 허티띠 줄리랴 수 없어.”

“그럼, 그럼! 아빠하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걸 왜 학원까지 가서 배워!”

아빠께서도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자 엄마께서는 한술 더 뜨셨다.

“아휴, 이번 기회에 우리 민호 학원에 보내지 말고 당신이랑 내가 직접 가르치는 게 어때요? 민호 학원비만 절약해도 우리 집 살림 살이가 한결 나아질 텐데 말이에요.”

“그거 좋은 생각이오. 그러잖아도 우리 회사 직원들도 입을 모아 하는 소리라오. 어떤 직원은 아이들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인이 부업을 하기도 하고, 노후대책으로 모아놓은 돈을 빼내 쓰거

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까지 쓴다는

게요. 어쩌다가 우리나라 교육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원.”

“하지만 그렇게 과외를 받으면 뭘 해요?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6개 대학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았더니, 혼자 스스로 공부했던 학생의 성적이 훨씬 더 높게 나왔대요. 그걸 보면 아무래도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께서는 마치 교육토론을 벌이시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화의 화살이 민호를 향해 휩 날아왔다.

“민호야, 잘 들었지? 그러니까 공부는 뭐니 뭐니 해도 자기 혼자 연습하고 복습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깨달아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란다. 이제부터 너도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보렴. 그게 바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지름길 이니까. 알았지?”

“치, 다른 아이들은 저보다 얼마나 더 많은 학원을 다니는지 아세요? 어떤 아이들은 체육 과외에다 성악 과외까지 받는걸요. 참 요즘에는 논술 학원도 많이 다니고요.”

엄마의 말씀에 민호는 통명스레 말했다.

“아휴, 그러면 뭘 하니? 그렇게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느라 학교에서는 꾸벅꾸벅 조는 학생들이 많다는걸.”

“음, 그러니까 우리 민호도 이제부터 하나씩 학원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보자꾸나. 그리고 한지는 아빠한테서 배우도록 하자.”

“.....”

민호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한자 신동’ 때문에 입은 피해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다.

민호는 그날 저녁부터 당장 아빠한테 붙잡혀서 생각지도 않았던 한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늘 찬, 땅 지, 검을 현, 누를 황, 집 우, 집 주.....”

아빠께서는 서당 훈장님처럼 몸을 앞뒤로 흔드시며 천자문을 읽으셨다.



“하늘 찬, 따라 지, 검을 현.....”

민호는 볼멘소리로 건성건성 따라 읽었다.

“아니, 이 녀석아, 잘 보고 읽어야지. 하늘 찬, 따라 지가 아니라 하늘

찬, 땅 지.....이렇게 말아야.”

“알았어요.”

민호는 하품을 하며 다시 따라 읽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며 어떻게든 도망갈 궁리만 하던 민호가 날이 갈수록 점점 아빠와 공부하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아빠께서 선생님처럼 작은 칠판에 글씨를 쓰고 한 자 한 자 가르쳐주시니까 한자가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

게다가 한자를 배운 효과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상형문자처럼 보이던 한자 하나하나에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쩌다 아빠가 보시는 신문을 어깨너머로 들여다볼 때마다 신기하게도 아는 한자가 나왔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한자 공부를 시작하고부터 아빠가 다른 때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시는 거였다. 매일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오셔서 잠자는 민호의 뺨에 수염으로 거칠거칠한 턱을 비벼대셨는데 말이다.

이제 민호는 아빠께서 퇴근하여 오시기 전에 미리 숙제를 다 해놓고 칠판을 갖다놓고 기다렸다.

“자, 오늘은 어디 공부할 차례지?”

“여기요!”

아빠는 큰 소리로 ‘얼굴 용(容), 그칠 지(止),
갈을 약(若), 생각 사(思), 말씀 언(言), 말씀 사
(辭), 편안 안(安), 정할 정(定)’을 읽어
나갔다.

신바람이 난 민호도 큰 소리
로 따라 읽었다.

“아이고, 우리 민호 목청
한번 낭랑하구나. 그래,
잘 생각했다. 그렇게
한 자 한 자 익히다 보면 나중에는
막힘없이 척척 읽고 쓰게 될 게
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으니 말이다.”

할머니께서도 민호가 뽀뽀 써놓은
한지를 보시고 대견해서 어쩔 줄 모르셨다.

“멍, 멍멍!”

예뻐도 그 옆에서 자기도 따라 읽겠다는
듯 짚어댔다.



그렇게 공부를 하자 민호에게는 아주 이상한 버릇이 하나 더 붙었다. 아이들을 만나기만 하면 다짜고짜 이렇게 묻는 것이다.

“야, 최우열, 네 이름 한자로 어떻게 쓰니? 응?”

“예나야, 너도 한자 이름 있니?”

아이들은 민호가 그렇게 붙잡고 물을 때마다 몹시 귀찮아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정말 자기 이름조차 한자로 쓸 줄 모르는 아이가 많다는 것이었다.

‘헤헤, 조경태 녀석, 아마도 오늘 저녁에 한자로 자기 이름을 외워 쓰느라 진땀 좀 빼겠다.’

민호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밤마다 피곤한 몸으로 한자를 가르쳐주시는 아버지께 한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엄마, 아빠 100살까지 사세요

“얘들아, 우리 잠자리 잡으러 가자!”

“어디로 갈까?”

“저기 공원 쪽으로 가보자.”

민호는 친구들과 함께 잠자리채를 들고 아파트 뒤편의 공원으로 갔다.

그런데 공원 옆에 있는 노인정을 지나다가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던 민호는 깜짝 놀랐다.

‘우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아?’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저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시거나 화투놀이를 하는 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노인정은 마치 언젠가 자원봉사를 하러 갔던 양로원처럼 보였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인정에만 계신 게 아니었다. 공원 의자 여기저기에 힘없이 앉아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모두들 허리가 구부정하고 눈에는 힘이 없어 보이고 어딘가 초라하고 슬픈 모습이였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민호와 친구들이 공원을 뛰어다니며 고추

잠자리를 잡는 걸 우두커니 바라보고 계셨다.

그렇게 잠자리채를 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던 민호가 막 집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민호야, 이리 와서 어깨 좀 주물러주련?”

할머니께서 무료 안마권 한 장을 내밀었다.

“네, 할머니!”

민호는 할머니 뒤에 앉아 마치 안마사가 된 듯 어깨를 주물러드렸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도 우리 민호가 남자라고 제법 손이 매워졌구나!”

할머니께서 좋아하셨다.

그 때였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치매에 걸린 친어머니를 시골의 외딴 집에 버리고 간 비정한 아들이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아들은 노모를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 버리고 돌아갔으



나 경찰의 추적 끝에 마침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동방 예의지국이라던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뉴스를 들으며 민호는 문득 조금 전에 노인정에서 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쫓쫓, 몹쓸 사람들! 그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내다 버린단 말이지? 그러고도 하늘이 무섭지 않은지 원.”

뉴스를 보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역정을 내셨다. 그러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다.

“그저 나이가 들면 빨리 죽어야 해. 저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서 뭐 해.”

그 말을 들던 민호가 필적 뛰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어요. 이다음에 제가 장가가서 아들 딸 낳는 것까지 다 보고 돌아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음, 100살까지는 사셔야 해요.”

“뭐어, 그렇게 오래? 싫다, 싫어!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잡지는 것처럼 편안하게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민호는 괜히 시무룩해졌다.

민호도 ‘죽음’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건 말하고 웃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였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

민호는 함께 살던 할아버지께서 겨우 71세의 연세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의 막막하고 슬펐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다.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나 집안에 누워 계셨을 때는 할아버지를 보고, 만지고, 말을 하고, 시중을 들어드릴 수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응석을 부리거나 구수한 옛날이야기를 들을 수도, 약수터에 함께 갈 수도 없었다.

민호는 할머니도 할아버지처럼 어느 날 훌쩍 새처럼 훨훨 먼 하늘 나라로 날아가실까봐 갑자기 걱정이 되었다.

“할머니, 그 무료 안마권 다 쓰시면 또 만들어드릴게요. 언제 어느 때라도 제가 필요하면 부르세요, 네? 제가 이래봐도 힘이 세거든요!”

민호는 할머니의 어깨와 팔을 더 정성껏 주물러드리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다가 민호는 문득 궁금해졌다.

‘사람은 도대체 몇 살까지 살 수 있는 걸까? 요즘은 과학이나 의학도 발달하고, 생활도 편리해져서 옛날보다는 수명이 길어지지 않았을까?’

그날 밤 민호는 아빠께 여쭙보았다.

“아빠, 사람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허허, 우리 민호가 왜 갑자기 그런 문제에 관심이 생겼을까?”

“우리 식구 모두 오래오래 살았으면 해서요.”

“글쎄다. 정확한 건 나도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특별한 병이나 사고가 아니라면 80세는 넘게 살지 않을까? 어느 책에서 보았더니 신석기 시대의 평균 수명은 29세였다고 하더구나. 그러던 것이 점점 늘어나서 요즘엔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잖나. 그래서 노인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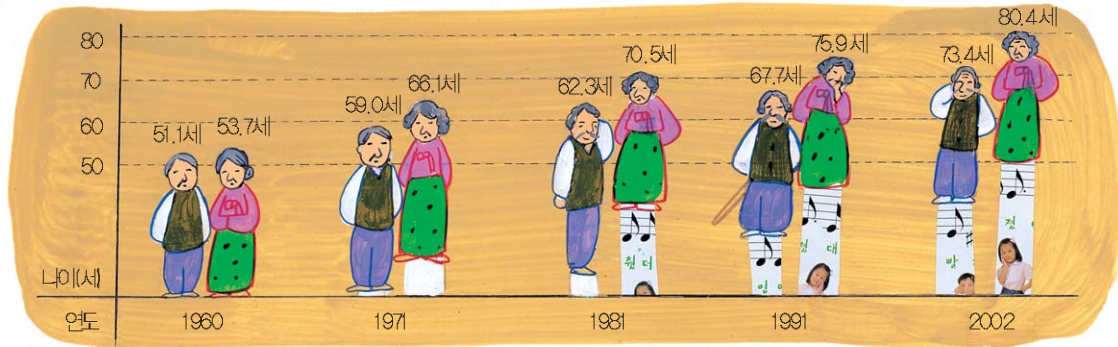
“아, 그래서 노인정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민호는 그 때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다음날이었다. 아빠께서는 어디서 구하셨는지 통계청에서 나온 평균 수명에 관한 자료를 복사해 오셨다.

거기에는 *평균 수명의 변화에 대한 도표가 나와 있었다.

평균 수명 추이



자료 : 통계청, 「생명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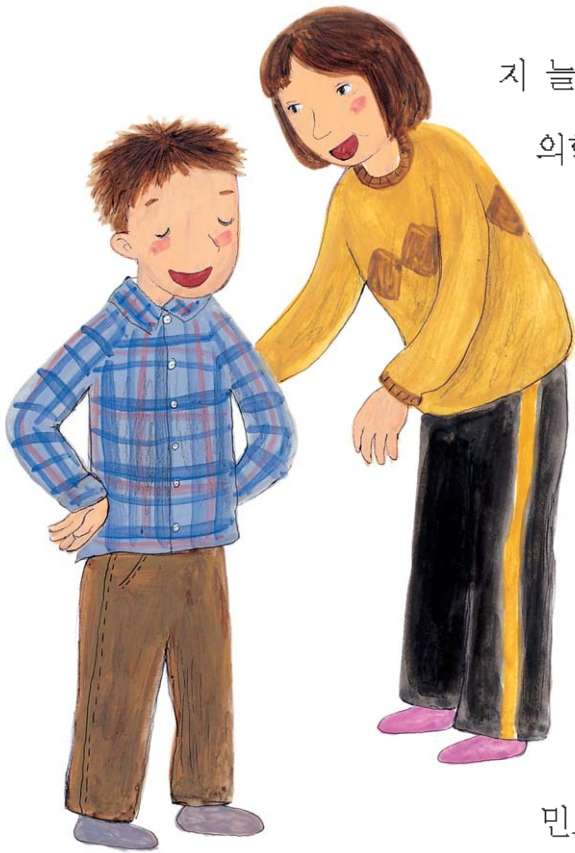
“우리 집 통계 박사님이 잘 이해하려면 이런 통계표를 보여주는 게 좋겠지? 자 보렴, 네가 궁금하게 여기던 게 여기 있단다. 1960년에 남자의 평균 수명이 51.1세였지? 여자는 53.7세였고 말이다. 그러던 것이 2002년에는 남자 73.4세, 여자 80.4세까지 올라갔잖나?”

“그러니까 남자는 1960년보다 22.3세가 늘어났고, 여자는 무려 26.7세나 늘어난 거네요?”

민호가 놀라서 물었다.

“그렇단다.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평균 수명이 90세까

* 평균 수명: 갓 태어난 아이가 평균적으로 정차 몇 년이나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한 사회의 건강수준과 발전정도를 평가하는 데 자주 사용한다.



지 늘어날지도 모르지. 그만큼 지금보다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좋아질
테니 말이다.”

“아휴, 그렇다면 안심이다!”

민호는 아빠의 말씀을 듣고 얼
굴이 환해졌다.

“뭐가 안심이야?”

“이 다음에 제가 커서 돈을 많이
벌어 효도할 때까지 엄마 아빠가
오래오래 사실 수 있을 테니까요.”

민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러자
엄마께서 기특하다는 듯이 민호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려주시며 말씀
하셨다.

“아이고, 칠딱서니 없는 줄 알았더니 이제 다 컸구먼. 그렇지만 나
중에 호강을 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엄마 아빠 말 잘 들
는 것도 큰 효도지! 알았니?”

엄마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만날 한강공원에 나가 축구다 뭐다
하며 뛰어놀기만 하는 민호를 보고 웃으셨다.

“넵,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께서 100살까지 사시려면 제가 그 정도 효도를 하는 것은 당근이지요!”

민호는 장난스레 말했다.

“어머머, 요 녀석이 벌써부터 엄마를 놀리고 있네!”

엄마께서 눈을 흘기며 웃으셨다.

그 때 문득 민호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그런데 아빠, 왜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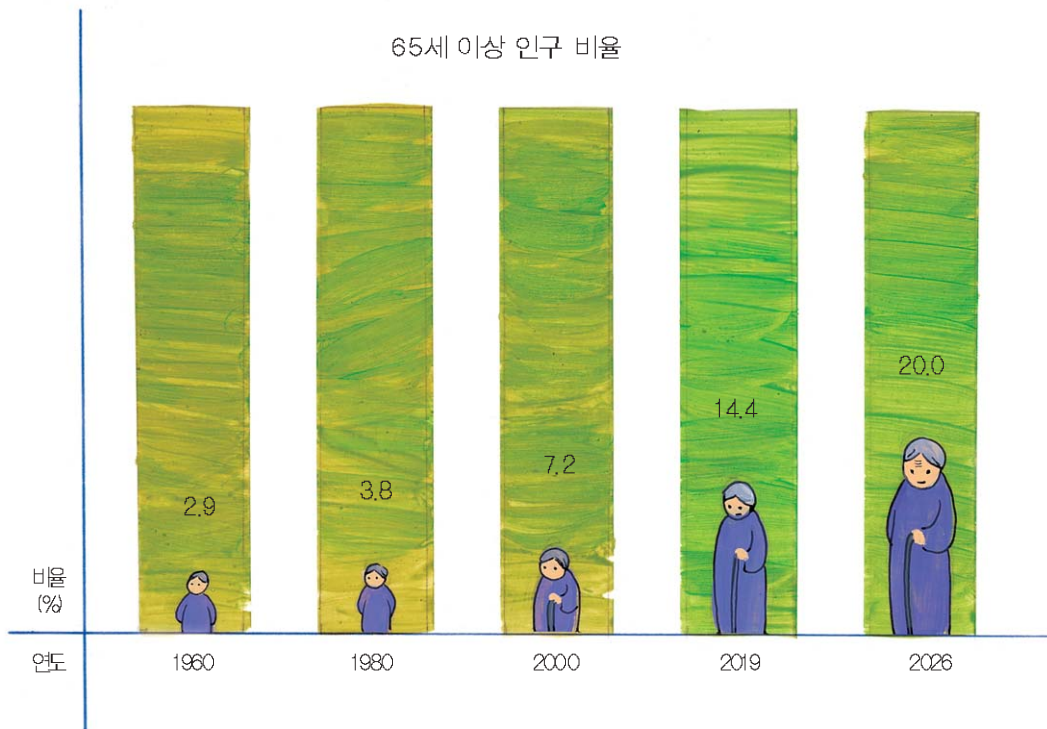
민호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처럼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할머니만 남아 계신 걸 떠올렸다. 그러고 보니 노인정에도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이 더 많이 계셨다. 거기엔 어떤 비밀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건 살아가면서 남자들이 가족을 부양하느라 끊임없이 일을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 아닐까? 농경 사회에서도 농사일이나 사냥, 전쟁 등으로 여자보다 남자들의 사망률이 높았거든.”

“정말요?”

갑자기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하하, 그렇지만 염려 말아라. 아빠는 이렇게 건강하니까 아마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퍼센트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고, 2019년이면 14.4퍼센트를 차지하여 **고령 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0퍼센트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여겨진다.

* 고령화 사회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14% 미만인 사회
- 2000년(7.2%) 진입.

** 고령 사회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20% 미만인 사회
- 2019년(14.4%) 진입 예상.

*** 초고령 사회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 2026년(20.0%) 진입 예상.

100살까지는 끄떡없을 테니!”

아빠께서는 팔을 들어 근육을 자랑하셨다.

그러다가 걱정스런 얼굴로 말을 꺼내셨다.

“하지만 그렇게 자꾸만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란다. 학술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퍼센트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퍼센트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퍼센트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단다. 이 통계 자료를 좀 보렴.”

아빠께서 그래프를 보여주셨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기간은 대략 19년이 걸린다고 한단다. 프랑스가 115년, 이탈리아가 61년, 영국이 47년, 일본이 24년 걸린 것에 비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거지.”

“어떠냐. 점점 빠르게 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이지?”

“아빠, 그렇게 고령 사회가 되는 게 왜 문제예요?”

민호는 아빠의 말씀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선은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보다 일을 하지 않는 인구가 많아진

다는 게 문제지.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국가경쟁력이 약해지는 거거든.”

“그럼 노인들에게도 일자리를 드리면 되잖아요.”

“참 좋은 이야기구나. 하지만 모든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드리면 또 젊은 층의 실업자가 생길 게 아니냐. 우리나라도 서구의 다른 나라처럼 서서히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다면 국가나 개인이나 미리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미처 그걸 겨를이 없었지. 그러다 보니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노인들이 갖고 있는 노동력도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란다. 그래서 갈 곳 없는 노인들이 공원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아빠의 얘기를 들던 민호는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빠, 우리 학교 앞에 붕어빵을 굽는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옛날에 경찰관이셨대요. 집에서 노는 것보다 일도 하고 돈도 벌기 때문에 아주 즐거우시대요. 가끔 고아원에 가서 붕어빵을 구워주는 봉사도 하신대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하긴 큰 회사에 다니던 분이 택시 운전이나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것도 보았단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나랏 노인 10명 중 4명 정도는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니 참 딱한 일이지.”

아빠의 이야기를 듣던 민호는 문득 작년 여름방학에 아빠 엄마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유적지와 관광지마다 대표소를 비롯한 많은 장소의 관리를 노인들이 하시던 걸 떠올렸다.

“아빠, 우리도 일본처럼 노인들의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원이나 길거티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이다음에 용돈도 많이 드리고, 으리으리한 집에서 아주 호강시켜드릴 테니까요.”

민호는 큰 소리로 외쳤다.

“하하, 그거 빈말이라도 기분이 좋은걸! 하지만 민호야, 걱정 말아

라. 아빤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퇴직금도 받을 테고, 또 연금보험료도 열심히 내고 있으니 연금도 받을 테니까. 또 그뿐 아니라 퇴직 후에 제 2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 열심히 궁리하고 있단다. 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일요일이면 엄마랑 열심히 산에도 가잖니. 어떠냐? 이 정도면 몇십 년 후에 멋진 할아버지가 될 만하지?”

“그럼요, 아빠!”

민호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학교 가기 싫어요

“선생님, 오늘도 서지훈 안 왔어요!”

선생님께서 아침 조회를 막 시작하려 할 때였다.

짜꿍인 김시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뭐어, 오늘도?”

아이들은 모두 누가 시킨 것처럼 3분단 넷째 줄에 있는 지훈이의 책상을 바라보았다. 지훈이가 벌써 나흘째 결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 알았다.”

선생님의 얼굴에 아침부터 잔뜩 먹구름이 끼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도 그 날의 사건이 영화처럼 스쳐갔다.

그건 정말로 지훈이나 아이들 모두에게 뜻밖의 사건이었다.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다.

아이들은 등교를 하자마자 교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야단이었다.

그 때였다. 서지훈의 뒷자리에 앉은 최우열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어, 이게 뭐지? 선물이잖아?”

지훈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우열이가 지훈이 가방에 든 수학 공책을 꺼내 숙제를 베끼려다가, 곱게 포장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이었다.

“뭐니? 뭐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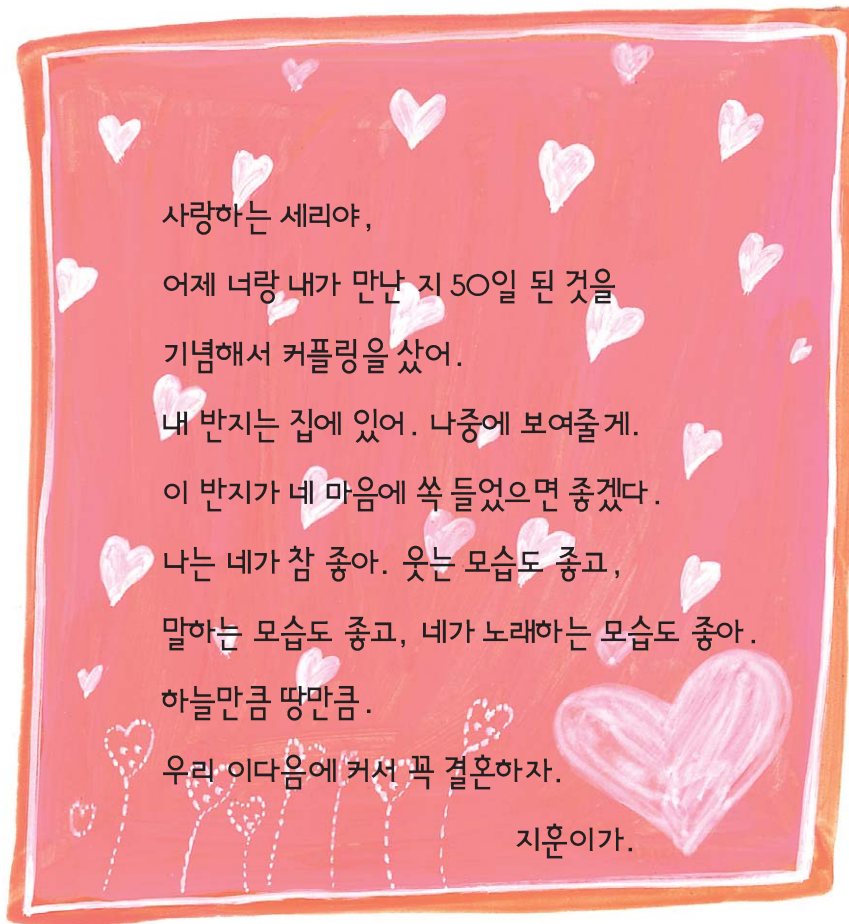
“어서 열어봐!”

아이들은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열이를 재촉하였다. 그러자 우열이는 겁도 없이 남의 선물 포장지를 벗기고는 안에 든 물건을 보았다.

“앗? 이건 커플링이잖아. 커플링이야!”

우열이는 짹 소리를 지르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 옆에 있던 아이들도 반짝반짝 빛나는 은반지 한 개를 보고 말았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쪽지 편지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였다.





우열이가 큰 소리로 편지를 읽자 아이들은 발을 뚱뚱 구르고 손뼉을 치며 난리를 부렸다.

“우하하! 지훈이가 세리를 사랑한대!”

“우와, 이다음에 결혼하재잖아!”

아이들이 놀려대자 앞자리에 앉은 세리는 그만 울음보를 터뜨렸다.

그 때 아무것도 모르는 지훈이가 교실로 들어섰다.

“얼레골레, 서지훈이 김세리를 사랑한대요.”

“얼레골레, 커플링도 사왔대요!”

아이들은 더욱 흥분해서 야단이었다.

그러자 얼굴이 하얗게 변한 지훈이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리.....줘, 그.....반지, 이, 이리 줘.....”

보통 때 밝고 명랑하던 지훈이는 무서운 얼굴로 우열이가 들고 있는 선물상자를 가리켰다.

“아, 알았어!”

우열이는 주춤주춤 반지 상자를 내밀었다.

그 때였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지훈이가 갑자기 황소처럼 우열이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이는 자기보다 덩치가 큰 우열이를 미친 듯이 때리고 발길 질하기 시작하였다.

“어, 어, 서지훈, 너, 왜, 왜 이래?”



엇갑결에 벌어진 일 앞에서 아이들은 얼이 빠져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그러다 회장이 달려들어 겨우 지훈이를 떼어놓았지만 이미 우열이 얼굴에서는 코피가 나고 여기저기 실컷 얻어맞은 뒤였다.

“엇엇, 엇엇!”

우열이는 일방적으로 당한 게 분한지 교실이 떠나갈 듯 울어댔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지훈이가 가방을 들고 휙 교실을 나가버린 것이었다.

아이들은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라 그저 어안이 빙빙할 따름이었다.

그 일 이후 교실의 분위기는 아주 살얼음판이었다. 지훈이 어머니와 우열이 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서 학교에 오셨었고, 지훈이는 며칠째 학교를 결석하고 있으며, 우열이는 우열이대로 얻어맞은 게 분해서 지훈이가 나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를 갈고 있었다. 또 세리는 세리대로 방어티가 된 듯 입을 꼭 다물고 좀처럼 아이들과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일이 어찌다 이렇게 되었지?’

민호는 머리가 뒤죽박죽이 되었다.

‘음, 우선 우열이가 먼저 잘못된 거야.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댄으니까. 그리고 지훈이는 또 우열이를 심하게 두들겨 뺐으니까 그것도 잘못이잖아.’

민호는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한테 선물을 사주고, 서로 커플링 반지를 사서 끼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달콤한 연애편지를 주고받는다느니 알고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그런 소문이 학교에 다 퍼졌으니까 지훈이가 얼마나 창피할까? 하지만 그렇다고 학교를 안 나오면 어떡해.’

민호는 지훈이가 언제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을 건지 걱정이 되었다.

선생님께서 가정방문을 가서서 지훈이를 몇 번이나 타이르고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학을 갈지도 모른다고 하고, 지훈이가 많이 아프다는 말도 들렸다. 아이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만약 내가 지훈이라면 나도 그렇게 학교에 나오기 싫었을까?’

민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용기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민호도 학교에 가기 싫을 때가 가끔 있었다. 오죽하면 배가 아프다고 궤병을 앓기까지 했겠는가. 물론 결국은 학교에 오고 말았지만.

그렇게 지훈이가 일주일째 학교를 나오지 않던 날이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요즈음 우리 반 분위기가 몹시 가라앉아 있지? 선생님도 속이 무척 상하구나.”

선생님은 거의 울 듯한 얼굴이셨다.

“오늘 너희들에게 다른 학교에서 실시한 ‘학교 가기 싫은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려주려 한단다. 그걸 보고 우리가 좀 더 지훈이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한다. 이건 선생님의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 어느 초등학교의 4, 5, 6

학년 2개 반씩 모두 6개 반

을 조사해본 것이란다.”

선생님께서 설문조사 결과를 컴퓨터 화면으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셨다.

질문 ① 여러분은 학교에 등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등교하나요?

- 1) 항상은 아니지만 대체로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한다.



: 50%(107명)

- 2) 별 느낌 없다 : 26%(56명)
- 3)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한다. : 18%(40명)
- 4) 학교 올 때 마음이 무거운 편이다. : 5%(11명)
- 5) 항상 마음이 무겁다. : 1%(3명)

“어떠니, 이걸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아마 다음 문항을 보면 학교에 오는 게 왜 즐거운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은 다음 문항을 보여주셨다.

질문 ② 학교에 올 때 즐겁다면 그 이유는?

- 1) 친구들이 좋아서 : 51%(104명)
- 2) 선생님이 좋아서 : 7%(14명)
- 3)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이 맛있어서 : 7%(14명)
- 4)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신나서 : 3%(6명)
- 5) 위의 모든 것이 좋아서 : 32%(65명)

“두 번째 문항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무얼 느꼈니? 어디 우리 반 통계 박사는 어떻게 느꼈는지 말해보렴.”

선생님께서 민호를 보며 말씀하셨다.

“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선생님이나 학교 공부보다는 친구들이 좋아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민호는 통계를 보는 눈이 참 정확하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의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친구’라는 점이 증명된 셈이지?”

“네에!”

아이들이 입을 모아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럼, 우리 다음 문항을 보자꾸나.”

질문 ③ 학교에 가기 싫은 적이 있나요?

- 1) 학교에 가기 싫은 적이 가끔 있다 : 63%(137명)
- 2) 학교에 가기 싫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 21%(46명)
- 3) 학교에 가기 싫은 적이 자주 있다. : 15%(32명)
- 4) 항상 학교에 가기 싫다. : 1%(2명)

“이걸 보면 너희들도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한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싫은 적이 있었거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문항을 보면서 생각해 보자꾸나.”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음 문항을 바라보았다.

질문 ④ 학교에 가기 싫은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1) 아침에 졸려서 일어나기 싫어서 : 31%(53명)
- 2) 숙제를 안 해서 선생님께 혼날까봐 : 26%(44명)
- 3) 친구와 싸워서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되어서 : 18%(31명)
- 4)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 14%(24명)
- 5)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 11%(19명)

“어떠니,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 중에서 많은 이유가 ‘친구’ 문제 때문이지? 물론 이건 다른 학교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의 생각과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너희들과 비슷비슷한 또래 아이들의 생각이니 많이 틀리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선생님께서서는 잠시 뜬눈을 들이시더니 한참 만에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들, 지금까지 지훈이가 일주일이나 결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지금 지훈이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부끄러움과 분함, 거기에다 친구와 싸움을 했다는 미안함,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친구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 등 여러 가지 아픔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란다. 마음이 아프다 보니

몸까지 아프게 된 거야. 그런 지훈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선생님의 말씀에 교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무도 선뜻 일어나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였다. 최우열이 조용히 일어났다.

“선생님, 모든 건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그날 지훈이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상자를 열어보지만

않았어도 지훈이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

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를 그

렇게 때리지도 않았을 테고요.

.....흐흑, 사실은 지훈이가 학교

를 안 나오는 동안 저, 저도 날

마다 하, 학교엘.....오고 싶

지 않았어요. 흑흑, 지훈이

한테 미안해서요.....”

우열이는 주먹으로 눈물

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 우린 네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아픔을 느끼더라도는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지만 우열아, 너는 참 마음이 넓은 아이란다. 그렇게 자기가 한 일을 뉘우치고 친구를 생각하는 아량을 지녔으니 말이다.”

선생님께서 우열이의 용기를 칭찬해주셨다. 그러자 우열이는 다시 울먹이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지훈이네 집에 가서 미안하다고 말할게요. 그리고 제발 학교에 나오라고 말할게요.”

우열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모두 큰 소리로 손뼉을 쳤다. 그 때였다. 앞자리에 앉은 세리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말했다.

“선생님, 저도 같이 갈래요. 사실, 저는 그동안 지훈이를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괜히 저를 좋아한다고 소문내서 부끄럽게 만들고,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반지를 사고 그래서요. 하지만 저 때문에 지훈이가 창피를 당했으니까, 제가 가서 달래주고 싶어요. 지훈이가 갖고 있는 반지도 기꺼이 받을래요. 그러면 지훈이가 기뻐할 테니까요.”

“와와! 김세리, 최고대!”

“정말 멋지대! 아자, 아자!”

아이들은 모두 세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손뼉을 치며 외쳤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설쳤다. 그건 내일 아침 지훈이가 학교엘 올까, 안 올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믿었다. 내일 아침, 지훈이가 학교에 나와 선생님과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리라는 것을.



엄마, 동생 하나만 낳아주세요

“민호야, 우리 딱지치기 하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재성이 말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딱지치기가 대유행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께서 보시던 잡지나 달력을 뜯어서 두껍고 단단한 딱지를 집어오곤 하였다.

“그래, 좋아!”

민호도 가방 속에서 어젯밤에 집은 뽀뽀한 딱지를 꺼냈다. 엄마께서 보시는 미술 잡지를 몰래 찢어서 만든 반들반들하고 두꺼운 왕딱지였다.

“어, 그렇게 큰 딱지로 할 거야?”

재성의 얼굴 표정이 단박에 어두워졌다.

“왜? 겁나니? 그럼 판두고.”

민호는 잔뜩 으스대며 말했다.

“겁나긴 누가 겁난다고 그래. 그 대신 그 왕딱지 내가 따면 다른 딱지 10장을 더 줘야해. 그래도 좋아?”

“좋아!”

마침내 둘은 가위 바위 보를 하고는 딱지치기를 시작하였다. 재성이가 먼저 민호의 왕딱지를 넘기려 하였지만 어렵도 없었다.

마침내 민호의 차례가 되자 민호의 왕딱지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팔딱팔딱 재성의 딱지를 넘겼다.

그렇게 한 열 장쯤 딱지를 따먹었을 때였다.

“오빠, 딱지치기해?”

재성이 동생 재은이가 피아노 가방을 메고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다가왔다. 재은이는



이제 1학년인데 어찌나 귀여운지 민호도 예뻐하는 동생이었다.

민호는 재은이 보라는 듯 더욱 힘껏 딱지를 내려쳤다. 그러자 재성의 딱지는 마치 파티약을 마신 파티처럼 비실비실 넘어가고 말았다.

“오빠, 딱지 다 잃으면 어떻게 해?”

재은이가 안타까운 얼굴로 재성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민호가 내려치는 딱지가 휘익 바람을 날리려 할 때였다. 갑자기 재은이가 달려오더니 손으로 딱지를 탁 쳐내며 외쳤다.

“이건 반칙이야. 민호 오빠가 손으로 우리 오빠 딱지를 넘겼잖아.

그러니까 무효야, 무효!”

“뭐라고? 말도 안 돼!”

민호는 어이가 없었다. 그러자 그 때까지 잔뜩 주눅이 들어 있던 재성까지 나서서 야단이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너, 이때까지 나 몰래 손으로 슬쩍슬쩍 내 딱지를 넘겼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따간 거지?”

“아휴,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손으로 넘겼다고 그래? 이 왕딱지가 바람을 일으켜서 넘어간 건데.”

민호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은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었다. 그러더니 재은이가 민호의 손에 든 딱지를 꾹싸게 빼앗아 가는 게 아닌가?

“이거 우리 오빠 거야.”

재은이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재성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으으윽, 분하다, 분해! 나도 저런 여동생 하나만 있었으면!”

민호는 치밀어 오르는 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곤 등에 뻐던 책 가방을 소리 나게 휙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 나도 동생 하나만 낳아줘요! 다른 아이들은 다 형이나 누나, 동생이 있는데 왜 저만 혼자냐고요!”

민호는 분한 나머지 눈물까지 나왔다.

“어머나, 너 왜 그러니? 응? 갑자기 왜 어린애처럼 울고불고 야단이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글쎄, 재은이가 말이어요…….”



민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아이고, 그렇다고 사내대장부가 그렇게 눈물을 보여?”

엄마께서는 달래주시기는커녕 핀잔만 하셨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역성을 들어주셨다.

“쫓쫓, 어린 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러겠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소원대로 동생 하나 낳아주거라.”

“어머니도 참, 이제 와서 어떻게 아이를 낳으라고…….”

엄마께서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셨다. 잡지사를 다니면서 민호를 낳으셨던 엄마는 그 후에도 죽 일을 하시느라 아이를 더 낳지 않았다고 하셨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잡지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계셨다.

“엄마, 우리 반 승재 엄마도 작년에 동생을 낳았는걸요. 엄마도 제발 동생 하나만 낳아주세요, 네?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동생이랑 놀이공원이나 목욕탕에도 같이 가고, 게임이나 운동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어디 놀러 갈 때도 만날 댈 자리에 혼자 앉아 가는 게 얼마나 싫은지 아세요?”

민호는 그 동안 쌓인 불만을 한꺼번에 털어놓았다.

“그렇지만 민호야, 엄마 이젠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어.

내일 모레가 4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엄마께서는 말도 안된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날 저녁 밥상머리에 앉아 또 동생 타령을 하였다.

“아빠, 생각해보세요, 이다음에 아빠랑 엄마도 안 계시고 저 혼자 달랑 이 세상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가엾지도 않아요, 네?”

“아니 뜬금없이 웬 동생 타령이냐?

이제 다 커서 형제나 남매 따윈 잊은 줄 알았는데?”

“아휴, 말도 마요!”

엄마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아버지께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말 씀드렸다.

“허허, 당신 아무래도

큰 폐장을 만났구

려. 그렇다면 할 수

없잖소? 우리 민호를



위해 당신이 예쁜 여동생 하나 낳아줄 수밖에.”

아빠께서는 동생이란 말을 듣자마자 입이 합지박만큼이나 벌어지셨다.

“아니, 당신까지 그럴 거예요?”

“뭘, 이제라도 못 낳을 것 없지 뭐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겠다, 당신도 이젠 직장에 안 나가니까 아이 키울 시간도 많을 테고, 게다가 우리 민호가 동생을 좀 잘 돌봐주겠소.”

“당신은 민호 키우면서 찢찢대던 거 그새 다 잊었어요? 새삼스레 어떻게 갓난아기를 낳아서 젖 먹이고, 뒷바라지해서 학교 보내라고요.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 결혼할 때쯤이면 우린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을 텐데 말이에요.”

엄마께서는 여전히 고개를 내저으셨다.

그렇다면 민호도 작전이 필요했다.

민호는 먼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기의 생각을 올렸다.

저는 동생이 있는 아이들이 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엄마 아빠를 설득하여 동생을 하나 낳아달라고 하려 합니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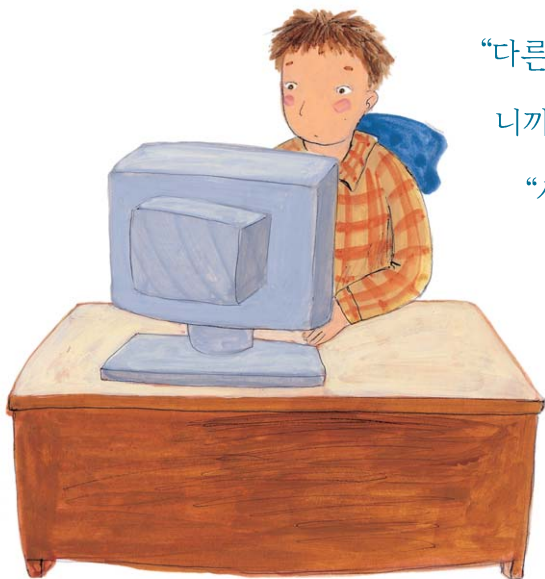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솔직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찬성)
2.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반대)
3. 만약 동생이 있다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가?

민호의 홈페이지에는 그 날부터 여러 가지의 답글이 올라왔다. 찬성하는 쪽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였다.

“동생이 있으면 심부름을 시킬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외출하셨을 때도 무섭지 않고 재미있게 놀 수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과 싸울 때 내 편이 되어줄 테니까.”

“사이좋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으니까.”

“용돈을 빌려서 쓸 수 있으니까.”

“같이 목욕을 갈 수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둘이 있으니까.” 등등이였다.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이랬다.

“자주 싸움을 하니까.”

“내 물건을 자꾸 만지는 게 싫어서.”

“공부나 다른 것에서 자꾸 동생과 비교를 당하니까.”

“졸졸 따라다니니까 귀찮아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할 수 없어서.” 등등이었다.

그 다음 3번째의 질문에는 한결같이

“가끔 있다. 하지만 동생이 없으면 슬플 것이다.”

“그래도 있는 게 더 좋다.”

“동생이 없으면 했다가도 하루만 없으면 보고 싶어진다.”

“가끔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동생이 있는 게 더 좋다.”

아이들은 솔직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주었다. 민호는 그걸 인쇄해서 엄마께 보여드렸다.

“넌, 지난번에 강아지 사달라고 조를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작전을 쓰는구나. 하지만 김민호 군! 강아지랑 아기는 사정이 아주 다르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요? 아기는 강아지처럼 애완견 가게에서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니까요!”

엄마께서는 한번 훑 보고는 본체만체하실 뿐이었다. 그러나 민호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어쨌든 엄마 말씀대로 아기는 엄마가 낳는 것이니까.

‘흥, 그렇다면 다음 작전을 짜야지.’

민호는 이 궁리 저 궁리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아빠께서 엄마 몰래 살금살금 민호의 방으로 들어오셨다. 한자 공부도 다 끝냈는데 말이다.

“아빠, 왜 그러세요?”

“민호야, 이것 봐라! 이 자료만 있으면 네 엄마도 두 손 들고 말게다.”

아빠께서 신문지 한 장을 들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셨다.

거기에는 ‘35세 이상 고령 출산 위험은 이제 옛말?’이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었다.

“야호! 아빠,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후후,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젊은 총각이 읽고 있던 걸 보곤 눈이 번쩍 뜨였지 뭐냐. 그래서 총각이 신문을 놓고 내리자마자 이렇게 들고 온 게다.”

아빠께서 들고 온 신문에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었다. 엄마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상 꼭 필요한 정보가!

“내가 이런 정보를 줬다는 거, 엄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럼요!”

민호는 그날 밤 신문을 보며 작전을 짰 다음, 작전 개시에 들어갔다.

“엄마, 미국 메릴랜드 대학 사회학과 스티븐 마틴 교수가 2002년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요, 의학의 발달로 늦은 출산의 단점은 점점 줄어들어 가는 반면, 경제적, 심리적 면에서의 장점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요즘은 아기를 낳는 나이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40대 후반에도 아기를 낳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참, 엄마도 벨런트 김미숙 아줌마 아시지요? 그 예쁜 아줌마가 글썽 마흔 살에 첫 아이를 낳았대요. 그런데도 그렇게 건강하고 예쁘고, 드라마에도 잘 나오잖아요!”

“이 녀석아, 내가 김미숙이니? 그런 사람은 그 동안 얼마나 몸 판
리를 잘 했겠니? 나는 너 하나 키우느라고 지쳤다, 지쳤어!”

엄마의 대꾸에 민호는 슬슬 기분이 좋아졌다. 지나친 무관심보다
이런 반응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
문이었다.

민호는 엄마께 ‘40세 이상 산모의 출생아 수’ ‘어머니의 연령별
출산율’ ‘첫아이 출산 평균 연령’과 같은 통계 그래프를 복사하여 엄
마 화장대에 슬그머니 놓아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엄마께서 아주 걱정스런 얼굴로 민호를 바라보며 말머리를 꺼내
셨다.

“민호야, 이걸 심각한 문제니까 잘 들어봐. 만약, 내가 네 동생을
낳았다고 하자,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일찍 죽으면 그 아이가 너
무 불쌍하지 않겠니? 그리고 혹시라도 그 아이가 왜 자기를 그렇
게 늦게 낳았느냐고 따지거나, 엄마가 늙었다고 창피해하면 어떻
게 하지?”

엄마의 울 듯한 표정을 보자 민호도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민호는 단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엄마께서는 그런 먼 훗날의 생각까지 하신 것이었다.

그러자 아빠께서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여보, 생각해봐요. 당신 나이가 이제 겨우 39세잖소.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걸 생각하면 최소한 80세 이상은 살 것 아니요? 그때쯤이면 그 아이 나이가 40쯤 될 테고, 이미 그 아이도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있을 나이가 되잖소. 그러니 그런 일이라면 조금도 걱정 말고 아기 낳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구려.”

“그래요, 엄마, 제가 이다음에 커서 주름살 수술도 해드릴게요. 네?”

민호도 코를 벌름거리며 옆에서 거들었다.

그러자 엄마가 활짝 웃으며 아빠와 민호를 바라보셨다.

“좋아요, 좋아! 내가 당신이랑 민호, 어머니의 끈질긴 성화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기를 낳으면 모든 육아는 나 혼자만



의 책임이 아니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나 민호도 우유를 먹이고 오줌 똥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목욕도 시켜줘야 한다고요. 물론 아기 데리고 산책도 가고 내 대신 유치원이나 학교의 학부모 회의에도 가야 하고요.”

“아이고, 어마마마, 그거야 지당하신 말씀이지요! 염려 마시고 부디 어여쁜 동생이나 낳아주시와요!”

민호는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하하하, 이제부터 나도 아빠 될 준비를 해야겠구먼. 그렇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말시오!”

아빠께서는 마치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다.

“그래, 어멈아, 잘 생각했다.”

할머니께서도 어느 틈에 싱글벙글 웃으셨다.



햇빛 마을 아이들이 서울에 왔어요

가을이 점점 깊어졌다. 어느 날 운동장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께서 손님들을 소개시켜주셨다. 우리 학교와 자매결연한 경상북도 영양햇빛 마을 햇빛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아이들이 우리 학교를 찾아온 것이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고장 영양은 청량산과 일월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이랍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찾아와 공해에 찌든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편히 쉬고 가시기 바랍니다.”

햇빛 초등학교 어린이회장이 조회대에 올라가서 씩씩하게 말했다.

그러자 아이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햇빛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는 서울에 처음 와보았다는 아이도 있었다. 그 아이들은 이제 경복궁이나 창덕궁, 남산타워, 63빌딩, 코엑스 물을 찾아다니며 관광을 할 것이다.

민호는 까치발을 하고 그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어떤 아이가 태우지?’

햇빛 초등학교 아이들은 1박 2일 동안 민호네 학교 아이들의 집에서 민박을 하기로 했는데, 바로 태우라는 아이가 민호네 집에 오기로

됐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조회가 끝나고 교감 선생님께서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교무실로 오라고 하셨다.

민호와 예나, 우열이 세 명은 들뜬 마음으로 교무실로 달려갔다.

선생님께서 햇빛 초등학교 아이 중에서 가무잡잡하고, 몸집도 단단해서 마치 6학년처럼 보이는 ‘장태우’라는 아이를 소개시켜주셨다. 예나의 집에서 민박을 할 아이는 ‘김선주’라는 키가 빼죽한 말라깽이 아이였고, 우열이의 집에 갈 아이는 ‘최배달’이라는 아이였다.

민호와 예나, 우열이는 서로 마주보며 의미 있는 눈짓을 보냈다. 그건 바로 ‘오늘 밤, 알았지?’하는 약속이었다. 밤에 세 팀이 만나서 동대문 시장 구경을 시켜주기로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다.

거의 20명에 달하는 햇빛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민박을 할 아이들을 만난 후 관광을 하기 위해 학교를 떠났다.

‘내 손님이야. 그러니까 재미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해.’

민호는 하루 종일 마음이 들떠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학교가 끝나고 약속대로 민호는 태우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어서 오너라. 먼 데서 오느라 고생했구나.”

할머니께서 마치 태우를 외손자처럼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래, 잘 왔구나. 오늘 하루 재미있게 지냈니?”

음식을 장만하시던 엄마께서도 활짝 웃으시며 반겨주셨다.

예뻐도 반갑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태우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다.

민호는 태우에게 집 구경을 시켜준 뒤에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오락을 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만난 어색하고 쑥스러운 분위기를 없애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때문이었다.

“그래, 부모님은 뭘 하시니?”

저녁 식탁 앞에서 아버지께서 물으셨다.

“네, 농사를 지으십니다. 요즘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늘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터넷으로 도시 사람들과 직거래 판매도 하시느라 아주 바쁘시답니다.”

태우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였다.

“그래? 요즘은 모두 웰빙이다, 신토불이다 해서 유기농 야채나 과일 인기가 높잖니. 게다가 수입 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때에 그거 참 잘 생각하셨다!”

아빠께서는 마치 아빠 일처럼 기뻐하셨다.

“그렇단다. 요즈음 슈퍼에 가보면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나 과일
은 상전 모시듯 제일 좋은 자리에 진열해놓았단다.”

엄마께서도 ‘유기농’이라는 말에 흥미를 보이셨다.

“아이고, 그렇게 좋은 음식 먹고, 맑은 공기를 쏘여서 네가 그렇게
튼튼해 보이는구나.”

할머니께서는 튼튼해 보이는 태
우가 마냥 부러우신 듯 자
꾸만 쳐다보셨다.

그때, 태우가 조심스
레 물었다.

“사실, 저도 이다음
에 크면 아빠처럼

농사를 짓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제 고향 영양을 빛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민호 어머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
습니다. 서울에는 24시간 문을 여는 큰 마트들이 많다고 하던데,
오늘 밤 저를 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 그건 안돼. 이미, 야, 약속이 있단 말이야.”



민호가 불쑥 나서서 손을 내저었다.

“무슨 약속인데 그러니?”

“저, 예나랑 우열이랑 같이 햇빛 마을에서 온 아이들에게 동대문 옷 시장 구경을 시켜준다고 했던 말이에요.”

“허허, 그랬니? 그렇다면 두 가지 다 하면 되지 뭘 그러니. 우선 태우가 가고 싶어하는 대형 마트에 갔다가 너희들을 동대문에 내려주마.”

“앗호!”

민호는 아빠의 시원시원한 제안에 환호성을 질렀다.

그날 밤 민호와 5명의 아이들은 아빠 차를 타고는 집 근처에 있는 대형 마트로 갔다. 그곳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예나의 작은 인형이랑 장난감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고, 우열이의 작은 CD와 오락기를 보고 싶다는 거였다.

“좋아, 그럼 각자 자기 짝을 데리고 구경을 한 다음에 정문에서 9시에 만나자.”

“그래, 좋아!”

아이들은 짝끼리 보고 싶은 걸 찾아 흩어졌다. 물론 민호는 태우를 데리고 지하 식품 매장으로 갔다. 엄마 아빠를 따라 자주 오던 곳

이라 마치 제 집처럼 그곳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었다.

지하 2층 식품 매장에 들어서자 태우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거렸다.

“이렇게 많은 농수산물들이 대도시로 올라오는구나! 아마 우리 영양 고추도 여기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고장의 고랭지 배추나 무도 말이야.”

태우는 민호보다 서너 살이나 위의 형처럼 의젓하게 말했다. 그리곤 야채 코너, 과일 코너를 돌아다니며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느라 정



신이 없었다.

그러자 집원 누나가 소리를 질렀다.

“애, 애, 그렇게 손으로 만지면 어떡하니? 엄만 어디 계시고?”

그러자 민호가 싱글싱글 웃으며 대꾸하였다.

“누나, 그렇게 야단치지 마세요. 애가 장차 우리나라 유기농법의 대가가 될 아이니까요!”

“뭘, 뭘라고? 요 꼬마가 사람을 놀리네!”

누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그렇게 태우는 대형 마트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뭔가를 수첩에 적기도 하였다. 특히 청정 야채, 유기농 야채 코너에 가서는 더욱 오래오래 꼼꼼히 살피는 게 아넌가.

“우리 아빠께서는 값싼 중국산 김치가 우리나라의 식탁을 차지하고 외국에도 값싸게 물량공세로 수출을 한다는 걸 아시곤 가슴 아파 하셨어. 그래서 빨리 유기농 야채를 대량생산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배추로 담근 김치를 먹도록 하고 싶으시대. 나도 아빠와 같은 꿈을 갖고 있고 말이야.”

태우는 배추며 무 코너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런 태우를 보며 민호는 많은 걸 깨달았다.

‘태우는 저렇게 어른스럽게 자기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구나. 그리고 요즈음 같은 세상에 장차 농부가 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잖아.’

민호는 한 시간 내내 태우 뒤를 졸랑졸랑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한 시간 후, 약속장소인 정문으로 나오자 다른 아이들이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아빠께서 오셔서 아이들을 태우고 이번에는 동대문으로 갔다.

그날 6명의 아이들은 거의 12시가 될 때까지 동대문 시장에서 옷 구경도 하고,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어묵도 사먹으며 즐겁게 보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정이 들었다.

그날 밤, 같은 침대에서 다정하게 잠을 잔 민호와 태우는 다음날 아침 섭섭한 마음으로 헤어져야만 했다.

“민호야, 이메일 보낼



게. 참 내 홈페이지에 놀러오렴. 그리고 언제 엄마 아빠랑 우리 집에 놀러오렴! 우리 집에 오면 아마 네가 좋아할 거야. 소, 돼지, 강아지, 고양이, 토끼, 닭, 온갖 동물이 다 있거든.”

“그래, 알았어!”

둘은 와락 열싸안고 헤어짐을 아쉬워하였다.

그렇게 햇빛 초등학교 아이들이 떠나고, 민호는 이제 경상북도 영양 햇빛 마을에 아주 친한 친구 하나가 생겼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태우의 카페를 들락거리며 이야기도 나누고, 태우가 올려놓은 동물들의 사진도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회에 다녀오신 엄마께서 들뜬 얼굴로 말씀하셨다.

“민호야, 이번에 어머니회에서 너희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은 햇빛 초등학교가 있는 햇빛 마을의 농산물을 사다가 직거래 장터를 벌이기로 했단다.”

“네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세요!”

민호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회에서 그런 기발하고 멋진 행사를 계획하다니!

“그곳의 청정 배추, 무, 고추, 파 같은 걸 주문해서 학교 운동장에

서 파는 거야.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너희 학교의 불우한 아이들을 도와주자고 말이다. 이번 단 한 번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어머니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다. 참 그리고 이번 주말에 우리 어머니회에서 직접 영양 햇빛 마을을 가보기로 했단다. 그곳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지 직접 눈으로 봐야 하나까. 물론 너희들도 데리고 가는 거란다.”

“우와! 그게 정말이에요?”

민호는 펄쩍펄쩍 뛰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곧 당장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태우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다.

하늘은 여전히 높고 맑은 가을날, 관광버스 한 대에 탄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신바람이 나서 햇빛 마을을 찾아갔다.

태우를 비롯한 그곳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한걸음에 달려와 반겨 주었다. 또 햇빛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도 어느 틈에 밀짚모자를 쓰고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을 외면하면 할수록 막대한 힘을 가진 외국 기업의 손에 우리의 식탁이 점령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머잖아 우리의 농촌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촌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농수산물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 풍토와 기후에 맞는 우리 농산물을 먹어
야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하셨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일행은 햇빛 마을의 비닐하우스
며 논과 밭을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그러곤 모두 농촌 체험을 직접 해보기로 하였다. 어머니들과 아이
들은 편을 나누어 직접 배추와 무를 뽑고, 떡도 만들고, 두부 만들기
도 해보았다.

그런 후에 모두 이장님댁 마당에 그늘막을 치고 앉아 밥을 먹었
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아이들은 다른 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콩밥을 두 그릇씩이
나 똑딱 비웠다. 그야말로 밥맛이 꿀맛이었다.

민호는 이런 햇빛 마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태우야, 나도 이런 시골에서 살고 싶어!”

“그럼, 여기가 너의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놀러오
렴.”



태우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일행은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다.

민호는 햇빛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넉넉한 인심을 가슴에 안고
는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 들었다. 옆에 앉은 엄마도 어느새 푹푹 단
잠에 빠져 드셨다.



통계왕과 통계짱이 만나다

어느 틈에 곱게 물들었던 단풍잎이 떨어지고 추운 겨울이 되었다. 이제 얼마 후면 방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방학 동안에 참가할 과학 캠프, 영어 캠프 등 여러 가지 캠프에 대한 안내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다가 얼 굴 가득 장난스런 웃음을 띤 채 아이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이번 겨울 방학에 통계청에서 주최하는 ‘5, 6학년을 위한 어린이 통계교실’이 열리는데 혹시 참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니?”

그러자 아이들은 모두 민호를 쳐다보며 외쳤다.

“김민호요! 민호가 가야해요!”

“호호, 민호는 우리 반 통계 박사니까 당연히 가겠지?”

“네, 가겠습니다!”

민호가 마치 군인 아저씨처럼 씩씩하게 대답하였다.

“그 외에 또 가고 싶은 사람은 없니?”

선생님께서서는 아이들을 둘러보시며 물으셨다.

그러나 선뜻 손을 드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들 방학 동안에 이 학원 저 학원엘 다니느라 바쁘기 때문이었다.

그 때였다. 갑자기 강유리가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 저요! 통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참가해볼래요.”

“그래, 그렇게 하렴. 여기 신청서가 있으니 작성해서 보내도록 하자. 어쨌든 민호 네가 유리를 잘 도와줘야 한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큰 소리로 대답을 하였지만 그만 정신이 얼떨떨하였다. 땅



꼬마라고 놀려대던 유리가 뜻하지 않게 같이 가겠다고 하자 그만 어리둥절해진 것이다.

마침내 방학이 되고 ‘어린이 통계교실’이 열리는 날이 되었다.

민호는 유리와 함께 미리 알아둔 대로 잠실에서 논현동 서울통계사무소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다.



지하철을 타러 가면서 보니 유리는 여전히 민호보다 키가 한 뼘쯤 커서 누나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호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다.

‘나도 곧 키가 클 텐데 뭐.’

민호는 지하철을 탈 때나 내릴 때도 오히려 의젓한 오빠처럼 유리를 대해줬다. 빈자리가 생기자 얼른 유리에게 앉도록 해주고 말이다.

그러다가 문득 민호는 궁금해졌다.

“강유리, 너 왜 통계교실에 참가한다고 했니? 평소에 통계라면 질

색이었잖아.”

“호호, 하긴 난 원래 수학 쪽은 싫어하는 성격이라 내키지는 않았지만, 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통계’를 들먹이는 걸 보고 사실은 통계청의 어린이 통계동산(<http://mirae.nso.go.kr>)에 들어가보았어. 그랬더니 의외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 그때부터 통계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어.”

“우와, 정말 놀랐다!”

민호는 우리가 통계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하자 더욱 친근감을 느꼈다.

지하철에서 내린 민호와 우리는 약도를 보며 서울통계사무소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벌써 다른 학교에서 온 5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린이 통계교실’을 맡은 이신영입니다.”

아주 활달하게 생긴 여선생님께서 먼저 인사를 하셨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리 만들어놓은 이름표를 나눠 주시며 조별로 앉도록 하셨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조별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첫째 조는 ‘통계왕’, 둘째 조는 ‘통돌이’, 셋째 조는 ‘통계 박사’, 마지막 조는 요즘 유행하는 대로 ‘통계짱’입니다. 자, 그럼 이름표에 쓰인 대로 자기 자리에 앉아주세요!”

민호는 1조 ‘통계왕’에, 유리는 4조 ‘통계짱’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게시판을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게시판에 붙어 있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마름모꼴의 판지를 가리키셨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발표, 퀴즈 맞추기, 그래프 그리기 등은 조별로 점수를 매겨서 여기다 표시를 할 거예요. 이 핀을 하나 꽂을 때마다 1점씩 올라가는 거랍니다. 그럼, 자, 우선 각 조별로 조장을 뽑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은 조별로 조장을 뽑기 시작했다. 하지만 각자 다른 학교에서 온 아이들이라 그런지 선뜻 누구를 조장으로 뽑을지 망설이는 눈치였다. 각 조에는 5학년, 6학년이 서로 섞여 있었다. 민호네 조도 마찬가지였다.

이때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제가 조장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조에서도 조장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나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통계짱’ 조에서는 우리가 조장으로 뽑힌 게 아닌가.

‘우와, 대단하군!’

민호는 늘 발표를 잘 하고 활달하던 우리가 금방 다른 아이들의 리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장이 정해지자 선생님께서는 먼저 ‘통계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통계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재미있게 이야기해주셨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같은 빙과류나 음료수를 파는 회사에서 여름철 장사를 위해 몇 년 동안의 여름철 날씨 변화를 통계로 알아본다든지, 초등학교의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통계를 내본다든지,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이들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수많은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데 통계가 이용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통계조사에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처럼 조사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대상 중 일부를 대표로 뽑아



조사하는 ‘표본조사’가 있다고 하셨다. 또 조사방법에 따라 ‘면접조사’, ‘전화조사’나 ‘우편조사’ 등이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는 ‘인터넷조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그렇게 조사한 자료는 ‘원그래프’ ‘막대그래프’ ‘꺾은선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 요즘에는 그림을 이용하는 도형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한다고 알려주셨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관한 통계는 자동

차 그림을, 동물에 관한 통계는 동물 그림을 이용하여 나타낸다는 것이었다.

민호는 그 동안 어림짐작으로만 알고 있던 통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자 점점 기분이 좋아졌다. 특히 그런 여러 가지 그래프의 종류와 통계의 이용에 관한 것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다.

곧이어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것들을 퀴즈 문제로 내셨다. 그걸 더 많이 맞추는 조가 점수를 얻는 것이었다.

선생님께서 문제를 낼 때마다 아이들이 서로 자기 조의 점수를 높이려고 목청을 돋우어 “저요, 저요!” 소리를 지르고 시끌벅적 야단이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조의 아이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금방 친해졌다. 아마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퀴즈대회를 연 듯 보였다.

하지만 퀴즈 문제에서는 별로 점수 차가 나지 않았다.

퀴즈 문제가 끝나자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각 조별로 연필꽂이, 색연필, CD케이스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용품과 장식품을 선물로 나눠 주셨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다. 그 사이 친해진 아이들은 통계청에서 미리 예약한 식당으로 가서 푸짐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유리야, 재미있나?”

민호는 점심을 먹고 나오며 유리에게 물었다.

“너, 조심해라. 아무래도 통계왕은 내가 될 것 같으니까!”

유리가 눈을 찡긋거리며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들었다.

오전에 했던 퀴즈 문제뿐만 아니라 오후 시간에 할 그래프 그리기와 발표에도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좋아! 파이팅!”

민호도 하이파이브를 하며 웃었다.

“자, 이제부터는 각 조별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프를 작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직접 통계 자료를 찾아 그래프를 그린 다음, 조장이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겁니

다.”

선생님께서서는 각 조별로 문제를 해주셨다.

민호네 조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서울과 울릉도의 날씨에 관한 그래프를 그려야 했다.

“야아, 조장, 우리는 꺾은선그래프가 좋겠는데, 어떻게 만들지?”

빙글빙글 돌아가는 안경을 낀 6학년 형이 민호에게 걱정스레 물었다.

“형,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만 하면 될 거야.”

아이들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자기 조의 문제에 알맞은 그래프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래프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아이들은 선생님께 묻기도 하고 직접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에 들어가 이런저런 통계를 찾아보면서 열심히 그래프를 그렸다.

저쪽에서는 우리가 색연필을 꺼내어 열심히 막대그래프에 칠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2조 아이들도 컴퍼스와 자로 열심히 원그래프를 그리고, 3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동안 내가 엄마 아빠, 친구들한테 이용한 그래프들이 모두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구나!’



민호는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이 새삼 신기할 따름이었다. 게다가 통계 자료를 그래프로 만들면 내용이 한눈에 들어와 훨씬 이해하기 쉽다는 것과, 어렵게 만들어진 통계 자료들이 과학이나 의학, 농업, 교육, 정치, 그 어디에서나 좋은 자료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통계 자료는 건축의 뼈대와 같은 거구나. 잘못된 자료

나 대충대충 만든 자료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게 뻔했다. 예를 들면, 7~8월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는 엉터리 통계를 만들었다면, 그걸 믿고 온 외국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될까?’

민호는 새삼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어린이 통계교실’을 열어준 통계청에도 고마운 생각이 들고 말이다.

민호는 마지막 순서인 발표 때, 작성한 그래프를 들고 나가 설명한 후 자기의 이런 느낌을 이야기해서 아이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물론 민호가 조장인 1조 ‘통계왕’이 점수를 제일 많이 얻어 1등을 하였고, 유리네 4조 ‘통계짱’은 3등을 하였다.

“김민호, 역시 너는 ‘통계왕’이야! 참 잘했어! 이젠 너를 땅꼬마가 아닌 ‘통계왕’으로 불러줄게.”

유리는 진심으로 기뻐해주었다. 그러다가 민호를 보고는 배시시 웃으며 물었다.

“김민호, 너, 내가 왜 통계교실에 참가했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줄까?”

“뭐? 진짜 이유? 그게 뭘데?”

민호는 고개를 가우뚱하며 물었다.

“호호, 그것도 몰랐니?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나도 한번 와보고 싶었어.”

“뭐? 뭐라고?”

민호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금방
그 말뜻을 깨닫자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벌쪽 벌어져서는 큰 소리로 외
쳤다.

“야, 강유리, 너도 이제부터 정말 ‘통계짱’이야!”

“호호, 그럼, 우린 서로 잘 어울리는 친구네!”

“그럼, 유리아, 우리 내년에는 통계청에서 주최하는 4, 5, 6학년을
위한 ‘어린이 통계 경진대회’에 꼭 나오자. 어떠니?”

“좋아! 여기 와서 다른 학교 친구들도 사귀고, 호호, 이렇게 멋진
선물도 많이 받고 신나잖아!”

유리는 선물을 한아름 안고는 활짝 웃었다.

“맞아, 맞아!”

민호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선물보다 더 좋은 건, 무
엇보다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유리와 통계 때문에 다시 친하게 된 점
이었다.

민호는 하늘을 둥실둥실 날아갈 것처럼 기뻐다.

“유리야, 가자!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정말? 야야, 신난다!”

민호와 유리는 신바람이 나서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어느새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기쁜 마음을 축하해주는 듯이.



선생님, 짝꿍 좀 바꿔주세요

- 재판 1쇄 발행 | 2004년 12월 30일
- 재판 4쇄 발행 | 2006년 7월 15일
- 글 | 이규희
- 그림 | 인형선
- 감수 | 김소영·노훈준
- 기획 | 김선옥·최종록·이명희
- 디자인 및 진행 | 강세종·장인행
- 펴낸이 | 오갑원
- 펴낸곳 | 통계청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 전화 | 042-481-2386~90
- 팩스 | 042-481-2474
- 홈페이지 | www.nso.go.kr
- 발간등록번호 | 11-1240000-000431-01

ISBN 89-5801-022-3 73310

값 8,000원

© 2004, 통계청

*구입 신청은 통계쇼핑몰(www.nso.go.kr/shopmall)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